

발행인·박성대/편집인·김정길/주간·한학동/편집·정만진, 홍억선, 홍헌득/발행처·계성학교 총동창회/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053)255-3900  
FAX(053)256-4942/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인쇄처·민기획, 홍임호/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244-17 ☎(053)256-8534, FAX(053)255-7831 <격월간>

## 창립 100주년 기념 「계성OB산우회」 에베레스트 등반



오랜 전통과 업적과 관록을 자랑하는 <계성OB산우회>에서 그 동안 준비했던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등반> 행사를 지난 4월 5일부터 9일간 계성학교 총동창회 후원으로 실시 했다.

이번 행사는 모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와 또한 지난 날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사고를 당한 악우(岳友)를 추모함과 동시에 고산 등반에 대한 적응 훈련

도 겸하였다. 사진은 다섯째 날인 4월 5일 11시 39분 텡보체(4,060m) 황금사원으로 가는 길에서 잠시 기념 촬영을 했다. 좌로부터 홍종욱(65회), 김경윤(76회), 박기섭(74회), 박동규(64회), 이재희(59회), 이상봉(59회), 전상무(59회), 앞줄 제일 막내 서승교(89회) 동문.

이번 행사의 원정 단장은 전상무 동문이 맡아 수고 했다.

 **동도트레이딩/주/**  
DONGDO TRADING CO., LTD.

代表理事

**李 杰** (56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3 코포모타워 810호  
TEL : (031)711-8315 FAX : (031)711-6584  
E-mail : klee@dongdo.co.kr  
http://www.dongdo.co.kr



인사말

# 우리의 역사는 이 지방과 민족 앞에 내놓아야 할 공적인 역사



친애하는 6만 계성 동문 여러분!

오래 전 이 땅에 뿌려진 한 알의 씨가 싹을 틔우고 시시때때로 부딪혀오는 거친 환경과 싸우며 처음 씨 뿌린 이의 귀한 뜻대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온 세상에 희망의 빛과 사랑의 향기를 퍼트린지 올해로 어언 10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100년은 우리 민족의 근대화와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겪었던 많은 일들 속에 뚜렷하게 자랑스러운 자취를 남겨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나온 100년의 역사가 갖는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길 수 있으며, 앞으로 이어

나갈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이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구자적 개척 정신이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100년은 우리 계성인만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될 수 없으며 이 지방과 이 민족 앞에 의연히 내어 놓아야 할 공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를 그냥 내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다듬어 역사적 사료의 가치를 가진 하나의 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며 그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계성 동문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각의 달란트가 진정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계성다운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계성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총동창회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 것이 여러 차례입니다만, 이제 그 기념의 날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100년은 저절로 흘러 온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선배들이 학창시절

자신이 배웠던 개척정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몸 바쳐 이룩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의 계성 역사를 만들어 온 그 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훗날 결국 우리 모두는 후회하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후배들 역시 그 역사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훌륭한 역사를 정리하고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정신적인 후원과 물질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당연히 우리 계성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100년간의 인고의 세월 속에서 때로는 가지가 꺾이고 온 몸이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 강풍에 시달리기도 하며, 어깨를 누르는 폭설의 무게로 가지가 찢겨지기도 하며, 여름 하늘을 섬광으로 수놓는 낙뢰에 맞아 허리가 잘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성의 역사는 이어져 오늘 날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처럼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합니까? 50계단을

오르내리며 키웠던 청운의 꿈을, 대강당에서 가진 채플 시간에 우리들의 가슴을 떨리게 했던 그 감동의 순간을, 그렇게 넓게만 보였던 운동장을 뛰던 10대들의 거친 호흡을, 겨울철 시린 매트 위를 구르며 내뿜던 세상을 향한 도전의 입김들을, 그리고 우리들의 온몸 구석구석에 남아 숨쉬고 있는 계성의 정신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고 다듬어 지금까지의 매듭을 짓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하나의 매듭을 위해 우리는 분명 초석을 놓아야 할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고 있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건 우리는 계성이라는 하나의 큰 수레를 함께 밀고 나가야 할 운명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척박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 소명을 다하며 이 세상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성 대

(38회·총동창회장)

## 계성학교의 자부심 「계성장학재단」 전 동문의 호응으로 좋은 결실 이뤄

2005년 8월 18일 오후 6시 모교 본관 3층 미디어 학습실에서 계성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자 발기인 대회 및 동창회 이사회를 가지고 정식 출범한지 만 1년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100년 모교 계성이, 6만여 동문을 배출한 모교가 국내의 각 지부는 물론 해외 지부까지 흔쾌히 참여하면서 100주년 동창회의 중요한 기념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 동안 본 사업을 위해 노심초사 전국의 각 기별 모임과 지부를 찾아 대화를 통해 당위성과 그 의미를 역설해 온 박성대(38회) 회장의 노고는 무엇에 비해 수가 없다. 거기다가 거금을 쾌척한 이형섭(35회) 동문을 비롯, 박기진(37회), 장영철(42회), 박병삼(44회), 신성택(45회), 김윤수(47회), 마상곤(47회), 김대곤(50회), 박연탁(50회), 이시원(50회), 박하규(51회), 윤동한(52회), 유윤철(52회), 김범수(53회), 이재운(56회), 정인조(58회), 손중배(64회) 동문들의 커다란 정성과 분담금을 납입한 지부, 기별과 함께 78회의 후배 동문까지 참여한 이번의 쾌거는 모두가 이제 모교

계성이 장학재단을 통해 옛날의 명성과 자부심을 되찾자는 무언의 뜻이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해외에 있는 시카고지부는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기금 200만원, 시카고 부담금 50만원, 동창회 발전기금 90만원 등 340만원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 동안 동창회 사무국은 이성행(27회) 동문을 고문으로, 신성택(45회) 전 회장을 이사장으로 한 8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계성장학회 이사진을 대구지방법원의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약 6억5천만원을 모금 예정하게 되었다. 이제 출발선에서 금년도 목표였던 5억을 초과 달성하여 2차년도 25억 모금이란 역사적인 장도에 올랐다.

계성동산에 불가능은 없다. 더욱 장학재단을 확장시켜야 한다. 전 동문이 1인 10구좌(1구좌 1만원)이상의 출연 동참과 미납한 기별 분담금을 속히 완납하여 다가오는 계성100년의 푸른 언덕 푸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내어야 한다.

### 재단법인 계성장학회 이사명단



고문 이 성 행 (27회)  
(동강심장연구실)



이사장 신 성 택 (45회)  
(법무법인 윤촌 고문변호사)



이사 박 성 대 (38회)  
(주)대동건설 명예회장



이사 김 용 태 (42회)  
(전 국회의원)



이사 장 영 철 (42회)  
(전 국회의원)



이사 조 준 제 (47회)  
(동양상사 대표)



이사 김 문 순 (49회)  
(조선일보 광고국 상무이사)



이사 박 연 탁 (50회)  
(대동산업(주) 대표)



이사 이 재 윤 (56회)  
(덕영치과병원 원장)



이사 김 상 태 (58회)  
(주)평화발레오 대표)



감사 장 동 현 (62회)  
(주)유성공영 대표)



감사 이 진 복 (69회)  
(보림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 여러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며 6만 동문 모두가 10구좌(100,000원) 이상 출연하여 모교 개교100주년을 맞아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고 그 이름을 글로벌화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장학기금 납부자

(2006. 2. 21 ~ 2006. 4. 27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성명	기수	납입금액	성명	기수	납입금액
김병천 손재정 신희구 정운석 한영석	44	10,000,000	배경호	50	100,000
			배진찬	51	100,000
			김경호	52	100,000
			신재복	54	100,000
			김익환	56	100,000
곽병삼	44	10,000,000	안순길	60	100,000
서삼덕	47	3,000,000	박경수	66	100,000
김수광	44	1,000,000	황상태	70	50,000
이승남	44	1,000,000	장철상	61	10,000
김경원	54	1,000,000	홍연호	63	10,000
김원룡	64	1,000,000	39회동기회	39	1,000,000
이기선	51	200,000	50회동기회	50	10,000,000
박영득	33	100,000	52회동기회	52	10,000,000
허성욱	42	100,000	61회동기회	61	10,000,000
김현호	43	100,000	62회동기회	62	10,000,000
이도환	44	100,000	70회동기회	70	7,000,000
신길수	44	100,000	영천지부		1,000,000
남태호	45	100,000	시카고지부		2,000,000
총합계		79,570,000			

## 100주년 사업부담금

(단위 : 원)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27		46	300,000	65	1,000,000
28		47	500,000	66	1,000,000
29		48	500,000	67	1,000,000
30		49	500,000	68	
31		50	500,000	69	
32		51	500,000	70	1,000,000
33		52	1,000,000	71	1,000,000
34		53	1,000,000	72	
35		54	1,000,000	73	1,000,000
36	100,000	55	1,000,000	74	500,000
37		56	1,000,000	75	500,000
38		57	1,000,000	76	
39		58	1,000,000	77	
40	200,000	59	1,000,000	78	
41	300,000	60	1,000,000	부산지부	3,000,000
42		61	1,000,000	울산지부	3,000,000
43		62	1,000,000	시카고지부	500,000
44	300,000	63	1,000,000	뉴질랜드지부	500,000
45	300,000	64	1,000,000		
총합계		31,000,000			

## 회보구독료 납부자

(2006. 2. 21 ~ 2006. 4. 27까지 입금내역임)

▷ 200,000원

박정룡(53회)

▷ 100,000원

박우달(35회), 최병부(49회), 김병일(56회)  
김인식(67회),

▷ 50,000원

유상근(40회), 유환무(42회), 김성광(47회)  
윤태일(55회), 김동수(59회), 김홍곤(62회)

▷ 30,000원

황보홍(45회), 이상달(53회), 최명환(53회)  
최현욱(54회), 이병한(59회), 변상훈(59회)  
권준수(65회), 신대수(70회), 여인성(71회)

▷ 20,000원

김경호(39회), 이우현(44회), 김정득(44회)  
김재양(44회), 박병무(45회), 최기웅(45회)  
서발원(45회), 서정호(46회), 김도승(47회)  
설춘수(49회), 박석희(50회), 배진찬(51회)  
김시생(51회), 이길수(51회), 정병대(52회)  
김경호(52회), 정문식(53회), 서정태(53회)  
정제일(58회), 성배기(59회), 백기홍(60회)  
김대수(60회), 홍종근(60회), 윤종식(63회)  
안종범(64회), 권양환(65회), 배정호(66회)  
조영석(69회), 김상용(72회), 이창섭(X)

## 장학기금 및 회보구독료 기별 납입금 내역

(2004. 8. 1 ~ 2006. 4. 27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기별	장 학 금			회 보 구 독 료	
	기별부담금	개 인	인원	금 액	인원
23		300,000	3	50,000	3
26				50,000	1
27		5,000,000	1		
29	300,000	1,000,000	1	30,240	3
30	300,000	200,000	2		
31		200,000	2	30,000	2
32	300,000	300,000	1	10,000	1
33	1,500,000	300,000	2	10,000	1
35	200,000	150,100,000	2	160,000	6
36		100,000	1	90,000	8
37		15,100,000	2	130,000	4
38		1,700,000	4	70,000	5
39	1,000,000	900,000	4	530,000	32
40		7,400,000	9	230,000	9
41	5,000,000	6,500,000	4	80,000	6
42	5,000,000	14,600,000	11	180,000	13
43	5,000,000	400,000	3	60,000	2
44	5,000,000	27,430,000	24	620,000	26
45	7,000,000	17,930,000	14	420,000	23
46		1,900,000	7	170,000	14
47	7,000,000	23,550,000	7	330,000	19
48	7,000,000	1,350,000	5	140,000	7
49		1,850,000	10	300,000	12
50	10,000,000	40,700,000	6	500,000	17
51	10,000,000	20,900,000	8	620,000	43
52	10,000,000	61,100,000	13	460,000	30
53		11,400,000	13	860,000	39
54	10,000,000	1,600,000	7	690,000	46
55	3,000,000	600,000	7	370,000	24
56	10,000,000	16,630,000	14	700,000	42
57	10,000,000	200,000	1	270,000	20
58	10,000,000	10,720,000	7	830,000	26
59		650,000	4	370,000	21
60	10,000,000	1,120,000	11	470,000	40
61	10,000,000	210,000	3	200,000	15
62	10,000,000	100,000	1	400,000	14
63	10,000,000	560,000	6	440,000	32
64		12,130,000	12	580,000	38
65				240,000	17
66		800,000	4	190,000	13
67		100,000	1	140,000	5
68		600,000	4	270,000	20
69		550,000	7	420,000	19
70	7,000,000	300,000	4	120,000	6
71	7,000,000	570,000	7	360,000	26
72		240,000	1	70,000	5
73		130,000	2	90,000	7
74	7,000,000	200,000	3	30,000	3
75				10,000	1
76				10,000	1
78		50,000	1	20,000	2
원주지부		400,000	13		
부산지부					
재천지부		400,000			
포항지부		3,000,000			
영천지부		1,000,000			
시카고지부		2,000,000			
무명		140,000	3	300,000	28
계	178,600,000	467,211,011	282	13,720,000	797

▷ 10,000원

이수광(29회), 김규형(39회), 서정원(39회)  
정재표(39회), 허동원(39회), 이영목(40회)  
손덕영(41회), 허성욱(42회), 윤기호(44회)  
김복진(45회), 한수일(45회), 구분탁(46회)  
조중구(47회), 김선영(47회), 이종하(48회)  
박 실(48회), 이두영(50회), 김승보(50회)  
이원희(51회), 김태근(51회), 김성식(51회)  
변열규(51회), 이기선(51회), 김규열(52회)  
최정수(52회), 장두현(52회), 김정웅(52회)  
강성길(53회), 김대관(53회), 우수동(53회)  
김 찬(53회), 손태암(53회), 이광준(54회)  
이응재(54회), 박동길(55회), 강병희(55회)  
이철용(55회), 김석준(56회), 장재호(56회)  
나채문(56회), 손덕곤(56회), 서정승(56회)

이상배(57회), 곽원호(57회), 김상태(57회)  
박성곤(57회), 이용수(57회), 정병수(57회)  
이규재(58회), 최홍식(59회), 하현석(59회)  
이재동(60회), 안순길(60회), 서 성(60회)  
박현순(60회), 정성화(60회), 김대현(61회)  
정한관(63회), 홍연호(63회), 김동익(63회)  
김종희(63회), 박인동(63회), 김치곤(64회)  
김 연(64회), 이정욱(65회), 장준환(66회)  
신현복(66회), 윤형근(67회), 최광화(67회)  
심상련(67회), 홍창호(68회), 장보섭(69회)  
박창규(69회), 유병혁(69회), 윤규열(71회)  
유환윤(78회), 무 명(2명)

계128건 2,550,000원(누계:13,720,000원)  
※혹 착오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성 창립 100주년 기념 해외지부 소개 ①

## 시카고 지부

# 1974년 출범. 시카고 지역의 유력 모임으로 발전 현제명 선생 유학 등, 1920년대 부터 계성과 많은 인연 있어

미 중서부(시카고) 계성 동문회는 1974년 강수상(37회), 이경화(38회), 김종구(39회), 박해달(42회), 김성호(43회), 권기서(45회), 이영화(46회) 등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회장 강수상, 총무 김성호 동문을 선출하면서 출발하였다.

현제명 동문(20회)이 1920년에 시카고에서 유학(음악)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동문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LA, New York, Washington D.C. 동문회와 함께 모교 은사님을 초청하여, 신후식, 신태식, 이만택, 정시화, 권인덕, 김병태, 신도환, 김다연, 김문선, 이규열, 전병직, 김태동, 금동진, 석의경, 김상영 선생 등이 다녀가셨고 변정수 선생님은 시카고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는 경북고, 사대부고와 함께 매년 동창회를 개최하면서 함께 정기 친목회를 가져왔으나, 현재는 계성학교만 단독으로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카고 동문들의 활동으로는 강수상 동문이 Rush의 대에서, 김종구 동문은 Edge-water Hospital에서 병원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였고, 박해달 동문은 미 정계에서 민주당 대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왕기 동문은 예방이란 선교단체를 설립, 청소년 문화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2006년 1월 28일, 시카고 근교의 쌍용 식당에서 24명의 동문이 구정맞이 동창회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시카고지부는 최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기금 200만원, 시카고 부담금 50만원, 동창회 발전기금 90만원 등 340만원을 보내왔는데 이번에 협조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강수상(37회) 1,000\$, 박해달(42회) 1,000\$, 권기서(45회) 100\$, 이영식(45회) 200\$, 이광삼(49회) 500\$, 김태우(53회) 500\$, 정영섭(53회) 500\$, 김광호(56회) 200\$ 등이다.

한편 강수상 동문은 본교의 제3의 교가가 있었음을 알려 왔다. 이 내용은 <계성100년사>에 수록될 계획으로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중 헨더슨 교장이 귀국하고 우리말 교가를 부를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시 교무주임인 나가누마(中々) 선생이 가사를 짓고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여 34회부터 37회까지 불렀으나 서양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교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저 멀리 구름 위로 팔공산령의 / 우뚝 솟은 봉우리 우러러보는 / 느티나무 향기 짙은 푸른 언덕에 /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모교 / 영예로운 배움의 집 그 이름은 계성

시카고에는 박해달(42회), 계성동창회보 제34호(2004. 10. 20)에 인터뷰 기사 참조) 동문 외에 유력인사들이 많다. 이상

## 2006년도 총회에 24명의 동문 참석, 구정맞이로 미 정계에 영향 끼치는 유력인사 많은게 특징

기(41회) 동문은 한동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시카고에서 1974년부터 1995년까지 20년 이상 자문변호사 활동을 했으며, 2002년 아시아 국가 최초 미국식 로스쿨을 열게 되었으며 현재 캄보디아 종합대학인 앙코르 국제대학교 설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연구 업적을 쌓고 있는 강수상(37회) 동문은 2006년 1월 7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열린 2005년 유공재외동포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는데 강 동문은 스티브 강 장학기금을 설립해 매년 3만달러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 미국의 학계와 한인사회 발전에 많은

의 저명한 Think Tank인 Woodrow Wilson 국제연구재단 이사로서 클린턴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6년 임기를 마쳤으며, 지금은 동재단의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1998년엔 미 연방 상원위원 공식후보로 일리노이 주에 출마한 경력도 있고 또 미국 민주당



▲ 박창호(60회), 김왕기(59회), 김광호(56회), 박종훈(57회), 손대곤(60회), 심재명(59회), 이영화(46회), 이광삼(49회), 김광준(47회), 조영환(46회), 이상기(41회), 김종구(39회), 신태용(41회), 박해달(42회), 권기서(45회)

러쉬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전학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박해달(42회) 동문은 워싱턴

대의원 및 정책위원으로 선출되어 크게 공헌을 했다. 그 밖에도 시카고 시의회 인준을 받은 시카고시 특사로 활동도 하고 있다.

Woodrow Wilson 재단의 전직 이사 중에는 Henry Kissinger, James Baker, Madeleine Albright, Colin Powell 등 전직 국무장관들이 많고,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중 Washington 방문했을 때 Woodrow Wilson 연회석에 60여명의 실세들을 초청하여 노 대통령을 위한 디너 및 질의 문답 프로그램을 주도하기도 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모교 계성을 그리워하는 동문들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정리 · 이수남(50회)

## 웨어자 엠브로 대구경북총판

취급품 엠브로 | 카파 | 웨어자 | EXTM | 단체 운동복

» 100주년 기념 T셔츠 판매중입니다. «

대표

양 효 석 (58회)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용재관 지원동 4층 2호  
TEL : (053)424-1515  
FAX : (053)382-2215  
H·P : 011-9366-6676



# 계성 창립 100주년 기념 해외지부 소개 2

## 뉴질랜드 지부

# 회원수는 가장 적은 본회지만 모교사랑 마음만은 결코 적지 않아

## 이민온 동문 모두 영주권 얻어 열심히 살고 있어, 만날 때 마다 감동의 교가 불러

한국인의 이민 역사가 길지 않은 뉴질랜드이다보니 계성 동문회의 창립시기도 그리 길지않으나, 회원들의 열기는 젊고 뜨거운 남반구의 먼 나라에서 계성 소식을 전합니다.

교민 수가 많지 않으니 계성 동문도 많지 않고 또 사는 곳이 오클랜드로 집중되다보니 그만큼 동문회 결성에도 애로사항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문회 결성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 총무를 맡고있는 제가 기억되는 대로 쓰겠습니다.

제가 이민을 온 건 2000년 초이며 그 이전에 이수득(56회)곽병화(60회), 곽광섭(61회), 김기영(65회) 동문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더랍니다.

재경 계성 산우회의 골수 회원인 제가 이민을 간다고하자 잘 살라는 인사와 함께 건네 받은 것이 동문회를 만들라는 특명과 3명 동문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이민와서 민생고 해결에 정신없이 뛰다가 정신을 차린 것이 2002년 월드컵 열기에 대한민국 전체가 뜨거워지던 6월경이었습니다. 마음먹고 전화를 드리니 이수득 동문은 그 사이 이호성(62회) 동문을 우연히 만나 계성 동문은 우리 둘 밖에 없냐고 한탄하고 있던 때니 그 반가움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아빨사 곽병화 동문은 전화가 불통, 곽광섭 동문은 이사로 전화번호 변경. 아, 조금 더 일찍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희망은 있더라.

곽병화 동문을 잘 아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지금 운영하던 농장을 처분하고 여행 중이니 돌아오는대로 만나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으니.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여행 중이던 두 부부가 제 가게로 저녁식사를

위해 찾아올 줄이야.

그래도 뉴질랜드는 아직 한국사람 만나면 반갑다고 얘기를 나누는 정도는 되다보니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혹시 곽병화 동문? 그래서 또 한명의 동문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이용기(65회) 동문이 이민오고-저와 서울에서도 자주 만나고 이민 정보도 주고받았으니 당연히사-김인섭(64회)동문도 비행기 타고-같이 농장을 운영하던 분이 제가 잘 아는 사이-그래서 그분 왓 인섭이도 개(?)고 나왔더라 그 학교 대구에서 제일 좋더라-대구에서 67회 동기회 총무를 맡고 있던 신정구 동문도 뉴질랜드로 건너 오고-우연히 저의 가게에 거름지고 장보러 왔다가 만남-하여 파악된 동문 수가 7명에 서울에서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인 김인수(66회)동문도 재경 서초 계수회를 통해 서로 연락하여 8명, 이 정도면 빨리 동문회를 결성하자고 서둘러 백악관(곽병화 동문의 농장집이 저푸른 초원 위에 지어진 예쁜 하얀집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에서 예비모임을 가진 후 2002년7월23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이수득(56회),부회장:곽병화(60회), 총무 본인(채현주(65회))을 선출하여 2006년 현재까지 장기 집권 중입니다. 그날 참석인원은 8\*2=16명(100%참석률입니다)

그 후로 타카푸나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이용기 동문이 그 골프장 CEO로 있는 김기영(65회) 동문을 만나고, 65회 김기영이 먼 친척뻘되는 66회 김기영 동문의 이민을 챙겨주고, 신정구 동문이 같은 동기인 김재철(67회) 동문의 소식을 전해와서 그해 11월 이수



▲ 2005년 6월 윤위한 선생님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좌에서 채현주(65회), 이용기(65회), 김기영(65회), 김기영(66회), 곽병화(60회), 신정구 처, 이용기 처, 곽병화 처, 중앙을 넘어서 김기영 처, 채현주 처, 김기영 처, 이수득 처, 이수득(56회), 윤위한 선생, 김재철(67회), 신정구(67회)

득(56회) 회장집에서의 모임은 규모에서나 운영방법에서나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짧은 역사이지만 2003년 모임에는 김두환(43회), 선생님과 함께 모임을 가졌으며(이민와 살고있는 딸네집에 다니러 오심) 2004년에는 여동생네에 들르러오신 윤위한(45회) 선생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74회 동문이 참석하는 번개팅도 있었구요.

아직도 회원 수가 적어서 목말라하던 2004년에는 교민지에 동문회 모임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신규 회원 모집과 계성 100년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러자 그렇게 찾아 해뻐던, 연락이 늦어 미안했던 곽광섭 동문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껏 뉴질랜드에 계속 체류중인 회원 기준으로 11명의 정회원이 만들어 졌으며 남섬에는 60회 동문이 한분 계

시나 워낙 먼 거리라 참석은 하지못한답니다.

2004년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자녀들끼리 진학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시간도 가졌으며 2005년에는 농장을 운영하는 곽병화 동문의 농장에서 밤 줄기 행사도 가졌습니다. 분기 1회의 정기 모임 이외에 뉴질랜드의 잊점을 최대한 살려 월1회 골프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 모임때는 교가를 1절부터 순번제로 3절까지 반복 부르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외국에서의 이민 1세대의 활동 영역은 어눌한 영어의 한계로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계성 동문은 100% 영주권을 취득하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김기영(65) 동문은 타카푸나 골프장의 CEO로,프로 골퍼로 활동하며 재 뉴질랜드 대한 체육회 부회장,한인회 고문 등을

역임하며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교민지에 우리에게 유익한 골프 관련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곽광섭(61회) 동문의 아들은 오클랜드 대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마케팅 학부의 전임 강사로의 출발을 지금 막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인 제2호의 Cairopracter가 될 이수득 동문의 아들 얘기. Software Programming 회사의 사장이 될 곽병화 동문의 아들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맡은 일에 열심인 우리의 동문들은 100주년 기념 행사를 마음으로부터 함께하자는 취지로 해외 지부 분담금도 걷었습니다. 회원수로야 가장 작은 해외지부겠지만 모교를 사랑하고 동문을 아끼는 그 마음만은 결코 적지않을 겁니다.

글 · 채현주(65회)

代表 / 建築士

**李澤鵬**

(59회 · 동기회 회장)

**(주)중합건축사사무소 남 양**

Tel : 053-741-1544 / Fax : 053-743-9481

e-mail : ny3@chol.net / nyarchl@korea.com



# 동창회와 모교 모두가 단합해야 옛날의 명성 되 찾을 수 있을 것

## 운영하는 「한영모터스」에 레코드, 종 박물관 개관 운영, 대구시민에게 귀한 볼거리 제공

### 김 대 곤 (50회) 총동창회 부회장



오랫동안 지역 사회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힘을 쏟아온 김대곤(50회) 총동창회 부회장의 행적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또는 겉으로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그의 겸양의 성격 탓이기도 한 것인지 그는 늘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는다.

대구 제일교회의 시무장로이기도 한 김대곤 부회장은 대구 지역 와이즈 맨 클럽의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는 등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봉사과 선교 활동을 해왔다.

그뿐 아니라 그의 부친인 우송 김학봉 회장님(유도 공인 9단)이 19년 전에 <우송 장학재단>을 설립, 해마다 대학과 중등학교 유도 특기생인 4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 88올림픽에서 계성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안병근(68회), 이경근(68회), 김재엽(70회) 선수의 금메달 획득에 크게 기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부친이 지난 해 50억이란 거액을 들여 <우송복지재단>을 설립,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는 부친자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김대곤 부회장도 적극적이다.

2004년 5월, 김대곤 부회장은 독일의 세계적 명차인 Audi, Volkswagen의 매장인 <한영모터스>를 대구 수성구 중동 76번지(희망로 네거리, 구 영빈관 자리, 직원은 20여명)에서 열었다.

지금도 성업중인 <한영요업>은 1971년 그의 부친이 창업한 타일 전문업체로 현재 김해에 대지 1만 여평, 건평 4500평, 종업원 200여명의 규모로 외장 타일 분야에서 선두 업체이기도 하며 특히 터널 내부에 부착하는 외장 타일 분야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뿐 아니라 타일 유약전문 생산업체인 진량공단의 <한영

산업>은 전국 400여 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타일 유약 공급 업체이기도 했다. 물론 고충도 없지 않았다. IMF 당시 10억원 이상의 부실 채권이 발생, 거래처를 대폭 정비하고 인력 감축을 하는 등 구조 조정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음악에 대한 김대곤 부회장의 남다른 관심은 유별나다. 한때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한 일도 있고 현재 향토의 대구음악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사단법인 한국 예총 대구광역시 연합회 회장에 출마한 후배 음악인을 적극 후원, 당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현재 한영모터스 대구 전시장 3층에 <한영아트홀>을 마련,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개최, 대구시민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한영아트홀은 60개의 좌석을 비치하고 있으며 살롱 음악회 형식으로 성악, 기악 등의 정기적인 음악회를 가져오고 있는데 티켓은 판매하지 않고 초청 음악회 형식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한영모터스 주최 동산의료원 후원으로 <한국 네팔 사랑 네트워크 자선 음악회>를

## 상설 한영아트홀 운영, 대구시민에게 수준 높은 음악제공 참여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동창회나 모교가 하나로 뭉쳐질 것 1880년도의 레코드, 세계각국의 종2500여개가 볼거리, 늘 개방

개최하여 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다. 이날의 수익은 전액 네팔 의료선교회에 보내었는데 특히 대구 지역의 많은 의사와 교수 등 문화인들의 협조가 컸다.

한영아트홀은 상설 음악홀로도 사용하지만 김대곤 부회장이 지금까지 수집해 온 희귀품 레코드 전시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음향 시설을 위해 1940년도 미국 웨스트턴 일렉트릭 제품인 아트홀 정면 좌우 양쪽의 스피커는 명기 중의 명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원음을 그대로 내는 뮤직 박스는 한영뮤직홀의 또다른 자랑거리다.

김대곤 부회장은 지금까지 SP판을 7000점을 모았다. 젊었을 때부터 오디오에 관심을 가졌던 김대곤 부회장은 25년 전 우연히 에디슨 축음기를 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구하기 어려운 에디슨 축음기를 2, 3개 더 모으



▲ Audi, Volkswagen 매장인 한영모터스 3층 <한영아트홀>의 레코드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각종 희귀한 레코드

면서 즐기고 했다. 현재 100여점 가량 수집했는데 숫자로나 규모로 보아서 국내에서 강릉의 <축음기 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할 정도이다.

레코드는 취미로 모은 것이나 자동차 전시장을 하다보니 공간

우리나라 경우 종은 사찰 외에 토산품이나 무슨 기념종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종은 하나의 중요 문화재가 되고있다. 때문에 김대곤 부회장은 독특한 종의 모양에 매료되어 해외 갈 때마다 종에 관

의 레코드 박물관과 소리와 모양의 종 박물관, 이렇게 두개의 박물관을 통해 재생 음악이 아닌 실제 연주 음악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지금까지 김대곤 부회장이 애써 수집한 기이한 모양의 레코드와 종을 통해 세계 여러나라들의 문화의 숨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레코드 박물관과 종 박물관은 대구 시민을 위해 항상 개방하고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휴일은 오후 8시까지이다. 물론 입장료는 없다.

“동창회는 무엇보다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지. 우리 계성이 대구의 몇몇 학교에 비해 결집력이 부족한 감도 없지만 그것은 관계나 사회적으로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동창회나 모교가 하나로 뭉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가 발전되면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요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힘드니까 자동차 사업도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는 김대곤 부회장은 동창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질평가 공로로 대구시장 표창,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글 · 이수남(50회)

이 있어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오픈했는데 상상 외로 많은 즐거움을 받고 있다는 반응이 있다.

1880년, 1889년 스위스 제품, 1904년 미국 제품의 레코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볼거리다. 그 뿐아니라 3층의 레코드 박물관 외에 2층에는 회심의 <종 박물관>이 방문객들의 눈을 끈다.

김대곤 부회장이 <종>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년전 휴가로 해외 여행을 나갔을때 그의 부인이 처음 종을 구입하고서 부터였다. 종이 아들 이름 항렬의 <鍾>자이어서였다. 그때부터 여행시마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여년 동안 2500여 개의 종을 수집할 수 있었다. 현재 종 박물관의 4면과 천정, 그리고 진열장에는 세계 각국의 독특한 문화 양식이 스며들어 있는 놀랄만한 숫자의 종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심을 갖고 수집을 해왔다.

최근 종은 소리 위주에서 모양 위주로 변하고 있음도 실감한다. 이제는 생활에서 종을 뿔레야 뿔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스페인의 토레도 마을에서 황동으로 된 무거운 종을 망설임 끝에 구입했고, 라스베가스의 후버 뎀을 지나다가 한 작은 마을에서 종 위에 인형이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오기를 40여분을 기다린 끝에 구입한 에피소드도 있다.

한영모터스는 대구 유일의 윈스톱 서비스 전시장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의 수입차 전시장 중 최대 규모의 최대 차량을 전시하고 있고 1층의 정비 공간에는 독일 최첨단 워크베이(Workboy) 4대를 구비, 하루 15대의 차량을 정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영모터스는 독일 명차 전시장만이 아니라 향토 시민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소리



동기회 순방·리뷰

# 현거선 교장의 자애는 70년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해

## 교가 '계성 계성 만만세'를 속으로 '조선 조선 만만세'라 불렀지

4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구 그랜드호텔 커피숍에 계성 원로 세 분이 모였다. 두 분은 대구에 거주하시고, 한 분은 서울에서 오셨다.

서울에서 오신 분은 “오랜만에 대구에 왔는데 점심은 팔공산에 가서 먹어야지” 하신다.

대구에 계시는 분도 화답하신다. “그래야지. 그렇잖아도 내가 팔공산에 멋진 식당을 예약해 두었네. 전에 우리 동기회에서 갔던 데 거기 말일세.” 하지만 세 분은 그랜드호텔 3층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된다. 대구에 계시는 다른 한 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팔공산의 오르막을 걸을 사정이 안 된 탓이다.

“허허, 내가 요새 다리가 아파서 말이야.” 이여진(李如眞) 전 모교 교장 선생님이시다.

오늘 모임은 27회 동기회이다. 필자가 교장 선생님의 존함을 서슴없이 한자로 적자 당신께서는 놀라신다. “어떻게 내 이름을 한자로 아는가?” 필자의 답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신데 한자 성함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실제로 필자는 그 며칠 뒤 61회 동기 3명과 함께 안동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도 한결같이 ‘李如眞’을 기억하고 있었다. “무의량 고등학교 동갑입니다.” “그래? 그것 참 더욱 반갑군 그래.”

이여진 교장 선생님의 자제 무의의 군도 계성학교 61회이다.

“요즘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어.” 고교 동기의 소식을 그의 부친으로부터, 그것도 모교 전직 교장 선생님께서도 듣는다. 이여진 선생님은 한신대 학장으로 계시다가 1971년도에 모교 교장으로 부임해 오셨다.

대학 학장님께서 학교장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서편 운동장에 모여섰던 당시 계성학교 재학생이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일본 관서대학과 미국 뉴욕신학대학 등에서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위해 유학하셨고, 중앙대 교수도 역임하셨다. 지금은 대구 앞산 아래 밀알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동참하셨다.

강석교 선배님께서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경북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하여 교감, 장학사를 거쳐 오랫동안 교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셨다. 본래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 섞인 회고를 하신다.

이여진 교장 선생님은 “이 친구는 정말 우리 27회 중에서 목사를 하면 가장 잘 어울리고 실재로도 멋지게 잘할 친구야” 하신다. 지금 대구 서남교회(남산초등 맞은편) 장로로 계시는데, 본래 목사님의 자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초등학교 교사를 1-2년만 하고 목회로 진출하려 했는데 살다보니 사십몇 년을 교단에 있어, 허허허.” 그러나 강석교 선배님의 자제 강윤구(51회) 동문이 군포 산본(山本)교회 목사로 시무 중이고, 손자 또한 목사가 되었으니 강 선배님의 소원은 대를 건너뛰어 성취된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강 선배님의 표정은 오로지 환하고 편안할 따름이다.

## 27회부터 계성 졸업생에게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졌지

### TV 골든벨에 여학생 나온 것 보고 계성 아닌 줄 알았어

서울에서 오신 선배님은 1961년 9월 13일 우리 나라 최초의 개심술(開心術) 수술을 성공시킨 이성형 의학박사이시다. 계속 경북대 의대에 근무하셨는데, 1985년 정년퇴임 후 고신대 학장으로 부임했다가 1990년 제2의 퇴임을 하셨다. 자제 두 분(민



▲ 대구그랜드호텔 커피숍에 모여 70년 전 계성학교 재학시절을 회상하는 27회 이여진, 강석교, 이성형 선배님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정길 사무국장 (사진 오른쪽부터).

혁, 민철)도 의사로 활동 중인데 차남 민철은 필자와 동기인 61회이다.

역시 이여진 교장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런가! 우리 민철이와 계성 동기라니 더욱 반갑군

교장을 역임하신 이여진 동문과 강석교 동문 두 분이 동시에 빙그레 웃으신다.

“우리 편 한더선(玄居善) 교장 선생님이야. 미식축구선수 출신이신데 체격도 뛰어났지만 대만

‘어느 학교로 진학하느냐? 입학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했어. 난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예정 이었는데 대구의전이라고 거짓 말을 했지. 형사는 거기 전화를 걸어 나의 입학을 불허하라고 하더군. 그만큼 일제의 압박이 심했던 시절이었지. 이 날도 현교장께서 급히 달려와 우린 간신히 일본 형사들로부터 풀려났어.”

다음날 학교에도 일본 경찰들이 장사진을 쳤고, 학생들은 형사들이 도열한 사이로 한 명씩 걸어서 졸업식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졸업생 대표로 송사를 하던 이성형 선배는 ‘(계성학교 다닌 지난 시간들) 회고해보면’ 하는 대목에서 일제에 받은 압박에 서러워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통곡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속에 억눌려있던 일제에 대한 반항심이 그의 눈물섞인 송사를 계기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졸업식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다. “70년도 더 지난 옛일이지만 지금도 졸업식 장면은 몇 시간 전 일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만큼 일제에 대한 반항심이 진했던 게지.” 세 분이 한결같이 말씀하신다.

“우리 교가에 왜 ‘계성 계성 만만세’가 있잖아. 우린 교가를 부를 때마다 ‘계성 계성 만만세’를 뜻으로는 ‘조선 조선 만만세’ 이렇게 불렀어.”

글 · 정만진(61회)

그래” 하신다. 선배님께서도 미국 조지 워싱턴대와 피츠버그대에서 5년간 유학하셨다.

27회가 입학하기 이전까지 계성학교는 일본 문부성의 ‘지정’ 학교가 아니었다. 지정학교가 아니면 대학입학 자격이 없었다.

그 이전까지 학년당 1학급이었는데 27회부터 지정학교로 승격이 되고 학급 수도 둘로 증설되었다.

본래 경남지역 선교사회에서는 약간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평양 숭실전문학교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때부터는 계성학교로 보내게 된다. 이 선배님께서도 이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김사엽(재미) 박성대(작고) 홍영욱(작고) 동문과 함께 계성에 입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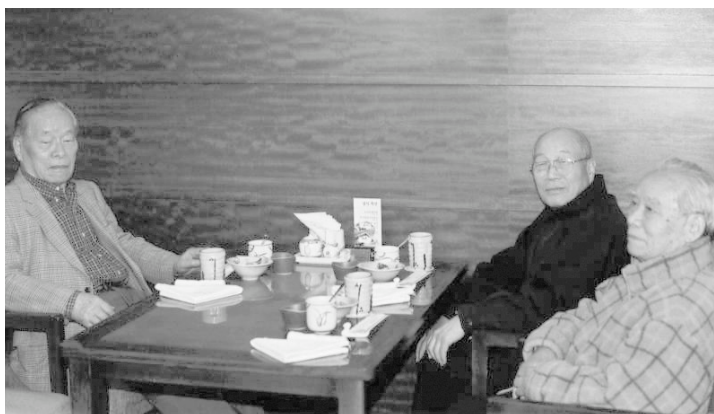
“학교 다닐 때 계성학교 교장이 누구였는가 하는 게 재학생들 예전 매우 중요해.”

모교 교장을 역임하신 이여진 동기를 바라보며 이성형 박사가 말씀하신다.

한 자유주의자이셨지. 항상 학생편에 서서 생각하시고 도와주셨어.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는 그 분이 교육자의 전형이라고 확신하네.” 이성형 선배의 회고.

“학교 다니던 중에 백지동맹을 한 적이 있었어. 수업을 거부하고 모두 교실에서 나와버렸지. 그대로 퇴학당할 일이야. 그런데도 현 교장께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너그러이 타이르시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지.”

회고담은 ‘눈물의 졸업식’으로 이어진다. “졸업식 전날 예행연습을 했어. 현 교장께서 졸업증서를 수여하는 대목에서 아이들이 웃었어. 그 일로 당시 최영호 훈육주임이 우릴 크게 꾸짖게 되고 예행연습이 중단되었어. 우린 시내에 모여 단체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어. 일본 경찰이 우리를 빙 둘러싸고 있었지. 고등계 형사가 학생대표인 나보고



▲ 대구그랜드호텔 3층 일식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누는 27회 세 동문. 왼쪽부터 이성형, 강석교, 이여진 선배님.



## ■ 계성 창립 100주년 축하 메시지 ■

### 우리 모두는 선원, 합심해서 항해해야



조 준 제 (47회)  
재경지부 회장

강산이 변하길 열 번, 세대가 바뀌길 네 번, 20세기 초에서 21세기까지! 100년이란 대단한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 계성학교가 우뚝 서 있다. 그곳에서 짙을 띄우고 자란 수많은 묘목들이 거대한 숲을 이뤄 계성

산맥을 이루었다.

그 숲의 나무들, 그 산맥의 바위들은 계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여긴다.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

영남 명문 사학이란 상표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 학창 시절엔 밤늦도록 도서관의 불을 밝히고, 운동장, 유도장, 농구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졸업 후엔 계성이란 브랜드를 달고 세상의 파도를 헤치며 열심히 살았다. 계성학교에서 머금은 자양이 만만치 않아 저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둥치 굵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

창업은 쉬우나 수성은 어렵다(創業易 守成難). 100주년을 맞은 오늘, 이 말을 절감한다. 그리고 어깨가 무겁다. 영광의 뒤쫓아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실감한다. 영광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노력해야 한다. 무임승차란 없다.

계성학교란 울타리 속에 있는, 그 그늘 아래 인연의 자락이 이어져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책과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동문 여러분의 혁명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옛날의 영화를 노래하며 '우리 계성 만만세'를 부르고만 있기에 현실이 냉혹하다.

모교의 위상과 입지가 심히 곤궁해졌다. 100년의 영광을 즐길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개교한다는 책임감으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재단 역시 혁명적 발상을 당부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에 세상의 물결은 저 만치 멀리 가버렸다. 명문의 영예를 되찾기 위한 분발이 있어야 한다. 현재 위상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퇴락한 왕조의 몰골이 되었는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현재 계성학교에 몸담

고 있는 교직원 또한 혁명의 선봉에 서야 한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려워, 그냥 대충대충 가르치지 뭐, 자원이 안 좋은데 별 수 없어. 이런 자세로는 도약할 수 없다. 명문가의 후손을 가르친다는 헌신적 신념과 노력을 당부한다. 선배들은 그 노력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힘과 뜻을 모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 100년 역사와 저력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그 역사의 함대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그 배는 저절로 순풍을 타고 항해하는 것이 아니다. 선장, 조타수, 기관사, 항해사 그리고 선원들이 합심하여 전진해야 한다. 방향은 정해졌으니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햇빛과 같은 광채'를 비추려 힘차게 나가자.

### 잊지 못할 계성, 목메어 다 부르지 못하는 교가



유 병 규 (47회)  
재고령지부 회장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외가 설악산 여행을 하였다. 먼길을 하루종일 달려간 길

이기에 저녁식사를 하고 나니 피곤도 했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설악산을 산책 하였다.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와서 주변의 온 상가가 북비고 활기가 넘친다. 과연 설악산이 명승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한 장소에 이르니 학생들이 엉겨 붙어 패싸움을 무섭게 하고 있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말릴 엄두도 못 내고 구경들만 하고 있었다. 나 역시 그

싸움을 제지할 능력이 없어 걱정만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싸움판이 무서워서 나를 끌고 여관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 때였다. 누군가 "저 놈들이 대구에서 온 계성학교 학생들이란다."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 왔다. 깜짝 놀라 놈들이 쓰고 온 모자를 보니 잊지 못할 계성학교 모표가 보인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앞에 섰는 것 비슬산이요, 뒤에는 팔공산 둘렀다." 큰소리로 교가를 부르며 싸우는 놈들을 주먹으

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싸움판으로 들어갔다.

무섭게 싸우던 놈들이 나이가 많은 조그만 한 사람이 계성학교 교가를 부르며 들어오니 싸움을 멈추고 나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교가를 1절, 2절, 3절을 목메어 부르는데 싸우던 한 놈 두 놈들이 교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조금 지나니 모두가 교가를 합창하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47회 선배임을 밝혔다.

장하다. 계성의 혼이 여기에 있다. 싸움판은 간 곳없고 나를 어깨에 메고 교가를 끝없이 끝없이 부르고 또 불렀다.

걱정스레 지켜보던 많은 관

광객과 주변상가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들하고 졸지에 나는 영웅이 되었고, 나중에 달려온 인솔 교사들과 경찰관들도 함께 손뼉을 치며 이내 그곳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

지면관계로 많은 것을 쓸 수가 없지만 그 모습, 그 광경은 계성이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계성의 혼이요, 자랑이다. 지금쯤 그 놈들도 사회의 중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겠지. 나는 오늘 교가를 다시 한 번 불러보니 목이 메어 부르지를 못하겠다.

계성의 나이 100이요, 내 나이 4년 후면 70인데 잊지 못할 계성이여. 영원한 계성이여.

### 새로운 계성100년을 위해 힘을 모아야



정 명 수 (55회)  
재울지부 회장

존경하는 계성 동문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청운의 꿈을 가졌던 시절에 그 꿈들이 영광도록 길을 열어준 모교 계

성고등학교가 개교의 문을 연 지 꼭 한 세기가 되는 날입니다.

특히 이런 뜻 깊은 날을 맞아 한국 산업의 수도인 울산 300여명의 선배님들을 대신하여 기념 인사말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계성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행운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교가 오늘날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자랑스러운 명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문 선

배님 여러분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계성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개교 이래로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동문 6만여명을 육성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함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가운데서 항상 민족과 함께 걸어 온 자랑스런 민족의 배움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계성 동문 여러분! 10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온 것을 자랑하고 세계에 그 이름을 드높인 것에 얼마든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은 우리의 모교인 계성이지만 그 전통과 명예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훌륭한 대망(大望)과 대지(大志)를 품을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성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개교 100주년 기념이 분기점이 되어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면서도 더욱 발전하는 새로운 계성 100년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성 동문 모두의 관심과 역량이 집결되어야 하겠기에 감히 동문 제위님들께 보다 많은 참여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모교의 교훈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를 마음 깊이 새겨보면서 계성 전 동문 가족 여러분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울산 동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의사회 부회장  
백승인 소아과 의원

원장 / 전문의, 의학박사

백 승 인 (59회 · 재경주지부 회장)

경주시 성건동 340-22  
TEL : (054)746-0002  
H·P : 016-583-0029  
E-mail : bsibys@hanmail.net



## 계성 창립 100주년 축하 메시지

### 가장 행복했던 재학시절, 예전의 명성 되찾아야



권 혁 태 (47회)  
재충청지부 회장

먼저 계성학교 설립 100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날까지 계

성학교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성 10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각자의 사명의식으로 계성학교를 설립하신 안의와 (James E. Adams)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헌신해 오신 교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계성을 역사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총동창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과 지역 동창회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계성학교에 다닐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계성학교는 우리의 자랑이었고 우리는 계성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

습니다. 또한 계성학교는 영남 지역 신교육의 모태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 자부심과 자랑으로 계성인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동창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50계단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마칠 때는 언제나 계성학교 교가를 소리높이 외쳐 부릅니다.

계성 계성 만세라, 우리 계성 만만세! 햇빛과 같은 너의 광채를 세상에 비춰라, 영원무궁 비춰라, 우리의 자랑인 계성아! 근년에 와서 우리 계성학교

가 옛날의 명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성학교는 100주년을 계기로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도약하는 계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동창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햇빛과 같은 광채를 세상에 영원 무궁토록 비추는 계성학교와 계성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성학교 설립 100주년을 동창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 선후배가 하나로 세상 비추는 등대되길



이 두 영 (50회)  
재부지부 회장

아시아 대륙의 관문인 부산 앞바다에는 오륙도가 있죠. 그

곳에는 하얀 등대가 있습니다. 험한 현해탄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길을 밝히죠. 우리 계성도 험한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100년 된 유일한 학교이며, 우리는 영광스런 계성 가족입니다. 특히 부산 동문 여러분! 우리는 고향을 떠나 타향인 부산에 터전을 내린 이방인입니다. 때로는 고향이 그리워 항수에 젖을 때는 사랑하는 가족

들로 부터도 위로 받을 수 없는, 오직 동문들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계성 가족인 것입니다. 3년 혹은 6년을 함께 한 후의 출발은 같았으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처지가 조금씩 달라져 있어도 우리는 한 뿌리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햇빛 좋은 양지에서 자란 푸른 잎이나, 그늘에서 자란 생기 없는 잎이나 모두 한 뿌리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그늘에서 자

라서 생기가 없다고 하여 누가 나무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동문여러분! 좀 있으면 어쨌고, 또 좀 있으면 어떻게? 잘 자란 나뭇잎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그리운 정담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창회를 만듭시다. 동창회는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특히 올해는 우리 계성이 등대되어 불을 밝힌지 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도 자랑을 합니다. 백년의 역사를, 특히 50회 동기님들, 우리는 백년에 가운데 자리

하고 있습니다. 4.19와 5.16을 교복을 입고 겪었으며, 나아가 학원사상 첫 휴교인 6.3휴교령을 겪었으며 서도 곳곳이 버터온 우리이건만, 그때의 그 기백은 어디로 다 가고, 이제는 모두들 뒤로만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꽃은 일은 제가 모두 하겠습니다. 후배들과 하나되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됩시다. 재부 계성동문님들! 모두 모이세요. 모두 오셔서 계성을 자랑합시다.

### 동해의 파도에 띄우는 축하 메시지



송 종 영 (52회)  
재포지부 회장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이름 계성! 본적은 바꿀수 있으나 학적은 바꿀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모교 계성이 찬란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펼치는 각종 행

사에 포함지역 500여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되새기는 것은 전체 동문들의 심정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100주년 경축행사를 진행하는 총동창회와 모교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한 없는 격려와 박수를 드리면서 먼 훗날 후배들이 맞이할 또 다른 계성100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각오와 준

비에 포함지역 동문들도 미약하나 힘을 더하기 위하여 더한층 노력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계성인의 긍지를 잃지 않고 선배들의 전통과 명예를 기리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포함 계성 동문들의 축하의 메시지를 동해의 푸른 파도에 실어 보내 드립니다.

### 계성 동산의 기억은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



김 기 섭 (53회)  
재경북 북부지부 회장

비슬산, 팔공산을 앞뒤에 두

고 우뚝 솟아 그 모습을 자랑하니 곧 계성학교임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더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나라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오더니 어언 개교 100주년의 찬란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됨을 모든 계성인과 함께 기뻐합니다. 계성동산에서 꿈을 키운 우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성학교 출신임을 자

랑스러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겁 없는 도전을 하게 했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 가득히 남겨준 계성 동산의 기억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고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가 되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가지가지 계성동산에서 생활할 때의 기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자상한 가르침과 고매한 인격으로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했던 은사님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꿈을 키워던 그리운 벗들, 봄가을에 열렸던 수양회, 수학여행, 성탄축하음악회, 매주 두 번씩 드렸던 채플, 양심의 주인으로 감동하시는 선생님 없이 자율적으로 치렀던 무감독시험, 아침마다 힘차게 불렀던 찬송과 경건하게 드렸던 기도... 자랑스러운 계성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

을 이루어 나가는 선후배가 되어 영원히 다함이 없이 끝없이 발전하는 계성의 미래를 내다 봅니다. 온 세계 곳곳에, 나라 안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자랑스러운 계성인을 통하여 우리의 모교 계성이 내일에도 끝없이 발전하고 무궁한 영광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교 계성의 100돌을 이 곳 경북북부지역의 일백여 동문들의 뜨거운 가슴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박 재 국 (70회)

대구 · 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4-3 복음빌딩 4F

TEL : (053)766-8866

FAX : (053)766-8343

H·P : 011-543-4925



100주년 기념사업

#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추모원정 등반

## <계성 OB산우회>, 등산 그 45년 역사, 인내 희생 협동의 결정체

이번 에베레스트 추모등반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 추모등반 뿐 아니라 향후에 있을 원정등반지 결정을 위한 정찰등반의 성격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3월 29일 저녁 7시~11시까지 등반을 위한 세부사항 점검을 하고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대원들의 마음가짐이 예전등반의 마음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터미널 앞에는 우리가 가는 것을 보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마중 나와 계셨다.

4월 1일(첫날) 회원들의 마음을 뒤로 하며 새벽 1시에 우리를 태운 버스는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약 4시간 30분 차를 타고 우리 일행은 인천공항에 도착, 여기서 합류하기로 한 대원들을 기다리며 휴식을 하고 있었다. 7시쯤 하여 대원들의 합류가 모두 이루어지고 출국을 위해 티켓을 발급받는데 아슬아슬,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장보일(76회) 대원의 여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유는 밝힐 수 없음. 밝히면 천기누설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짐.) 이 문제로 시간 끌 수도 없고 해서 장보일 대원의 짐을 분산하여 다시 짐 꾸리고 서둘러 8명이라도 가야하기 때문에 9시 5분 비행기를 타고 우선 홍콩을 경유하기 위해 홍콩으로 출발한다. 홍콩까지 거의 4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 죽을 맛이였다. 하지만 기내에서 제공해주는 음식도 맛있고 스튜디오에 예뻐서 참았다. 홍콩에서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하여 4시간 정도 기다린다.

그리고, 또 홍콩에서 카트만두까지 6시간의 비행에 너무 지친다. 현지 시간 저녁 7시 30분 카트만두 도착. 이 곳은 지금 내전 중이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살벌하다. 군인들이 짝 깔렸다. 그래도 외국인에게는 해를 안 끼친다니 믿어보자.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는 중 역시 살벌하다. 기다리던 저녁식사 시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어서 입에 맞지 않았지만 배가 너무 고파던 차에 허겁지겁 먹고 있으니 기섭이 형이 “승교야 너는 뭐 먹는게 현자인 갈노?” 하고 해서 모두 한바탕 웃었다.

곧이어 조출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내일부터 있을 일정 점검 및 산행계획을 의논하였는데 원래의 일정 계획에 상보체에 제를 지내기로 한 것을 에베레스트가 잘 보이고 기타 산군들도 잘 볼 수 있는 텡보체 사원에서 제를 지내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월 2일(둘째날) 아침 카트

만두와 우리나라 시간 차이는 3시간 30분 정도 카트만두가 빠르므로 새벽 5시에 기상하는 것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었으나 별 느낌없이 씩씩하게 일찍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카트만두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무슨 놈의 공항이 서부정류장보다 못하고 기다린 지 3시간 30분 만에 루크라행 비행기가 온다. 이 나라의 시간은 정말로 길긴 고무줄이다.

13시 20분쯤에 출발하여 13시 50분 2,800m 루크라 공항 도착. 내리자마자 설산이 하늘을 찌를 듯이 딱 버티고 있는데 사람 주눅들게 한다. 앞으로는 더 많이 갈 것이지만 오늘은 팍팅이라는 곳까지 간단다.

간단한 점심식사 후 우리의 집은 야크에게 실려서 먼저 가고 우리는 셀파(길 안내자)와

식사를 한다. 식사 전 맥주를 간단히 한 잔 하는데 하늘을 우릴어 보니 우리나라의 가을하늘처럼 너무나도 맑고 높았고 날씨도 가을날씨와 유사하고 이처럼 경치 좋은 곳에서의 맥주 한잔 카~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식사 후 다시 남체로 발걸음을 옮겼다. 식사 후 산행길은 가파른 오르막 길의 연속이다. 고도가 자주 올라가니까 머리로 가끔씩 찌꺼거리고 호흡하기도 벅차오는데 장난 아니네. 하지만 주위의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깔다고개 서너개 넘어 어느새 남체 바자르(3,400m)에 도착, 남체는 정말 멋진 곳이다. 3360m도 올라오기 힘든데 여기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집을 풀고 식사 시간 전까지 남체시장 이곳

느낌과 동시에 올라올 거리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된다. 3,200m 계곡 옆 어느 한적한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메뉴는 비빔냉면 아주 맛있었다.

식사 후 텡보체로 출발. 너무 짧은 시간에 4,000m까지 올라가려고 하니. 높이가 올라 갈수록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머리도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16시쯤되어 목적지인 텡보체에 도착하였다. 도착하니 약간의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그래도 정면에 보이는 에베레스트, 로체, 로체샬, 아마다블람 등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꿈에 그리던 산들을 현실로 맞으니 글로도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며 들이키는 소주 한잔이 왜 이리도...

4월 5일(다섯째날) 또 다른

봉행이 오늘 컨디션을 물어보셔서 추모제를 지내서 괜찮다고 하니 고인이 된 형제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말을 듣고 나니 또 눈물이 앞을 가린다. 추모제를 마치고 우리는 상보체를 통해 다시 남체로 향하였다.

하산길에 동규형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듯했다. 어제부터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니 잘 견지 못하십니다. 중식 후 상보체에 들렀다가 남체에 도착 시장에서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저녁식사 후 오랜만에 괜찮은 컨디션으로 대원들 간에 소주를 한 잔하면서 앞으로 원정계획 등 우리 산악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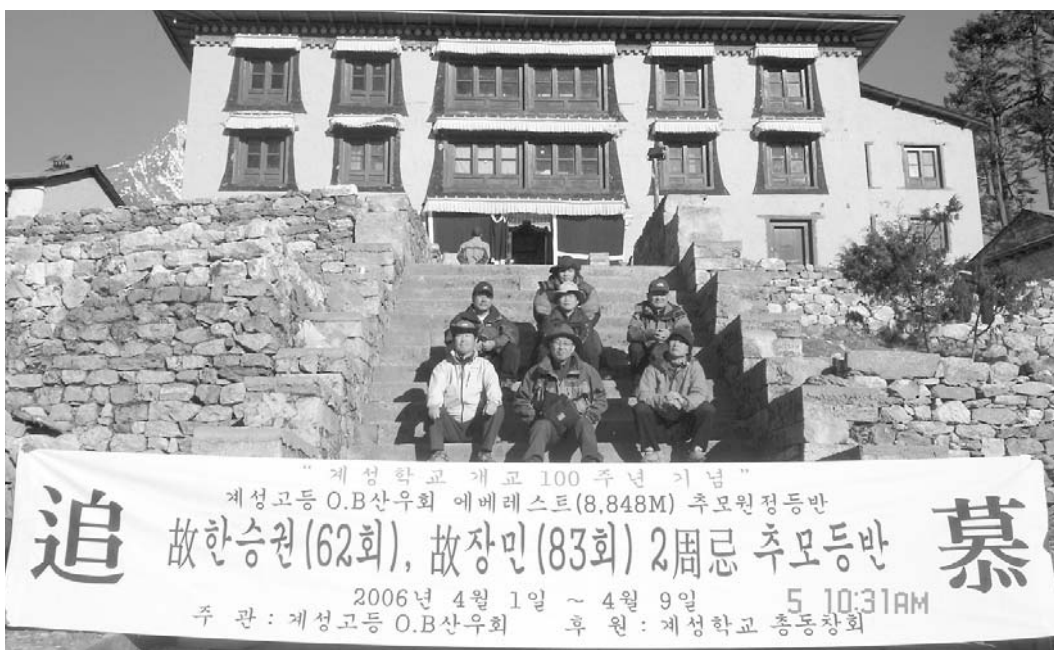
4월 6일(여섯째날) 오늘은 6시 기상·루크라까지 다시 돌아간다. 남체에서 루크라까지 7시간 30분 정도 산행. 산행 끝 자락에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쉬운지 천둥과 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진다. 그 동안 너무나도 좋았던 하늘과 산행을 끝내는 이 시점에서 비의 의미가 야릇한 기분이 든다.

루크라 롯지에서의 저녁식사. 한국에서 온 여성 등반가 고미영(암벽전문가), 그리고, 광운고 OB 2명과 우리 대원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산행을 무사히 끝낸 축하와 에베레스트 단독 등반을 하기위해 고소적응 차 우연히 만난 고미영씨의 등반 성공을 기원하며 이 밤을 보낸다. 이로서 우리 산행 일정은 모두 끝이 났다.

4월 7일(일곱째날) 루크라에서 카트만두로 지난번에 타고도 느꼈지만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도 소리지만 고도 기복이 심하여 경비행기는 너무 무섭게 느껴진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히말라야를 뒤로 하고 우리 원정대는 카트만두로 향한다. 여기는 아직도 내전 중이라 다음날 휴식은 엉망이 될 것이라 예상되었고 실제로 그랬다.

이번 원정을 함께 한 대원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정대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회원 및 계성총동창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글·박기섭(74회)



▲ 계성 OB산우회의 에베레스트 등정 중 텡보체 사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포터(집꾼)들과 같이 천천히 출발하였다. 한 3시간 정도의 내리막을 산행하여 팍딩(2,600m)에 도착하였다. 저녁식사 후 산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하였다.

4월 3일(세째날) 현지 시간으로 5시 30분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짐을 챙기고 산행준비를 하였다.

오늘은 남체까지 산행이다. 남체 바자르(3,400m)에서부터 오르막이 장난 아니다. 고소 현상이 심하게 온다는데 걱정이 앞선다. 아무튼 가보자 출발!! 8시 10분 산행 시작 그다지 경사가 심하지는 않았다. 가는 길 곳곳에 불교 사원이나 유적지 같은 것이 많이 있다. 멀리 보이는 만년설로 덮인 설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각국에서 온 트래커들로 산행길이 북빈다.

한 4시간 정도 산행을 하고 몬조라는 곳에 도착하여 점심

저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에도 우리나라 5일장처럼 금·토요일 장이 서는데 우리는 월요일에 도착하여 아쉽게도 장이 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고소증세가 밀려온다. 마스크고 머리 아프고, 아무튼 기분이 엄청 엉망이다. 구경이고 밥이고 다 귀찮다. 그냥 자고 싶다.

4월 4일(네째날) 5시에 기상하여 식사 후 산행준비를 하였다. 오늘은 우리 원정대의 최종 목적지인 텡보체이다. 4,060m인 텡보체는 큰 불교사원이 있어 거기서 지난 2004년 에베레스트 원정 때 사고로 돌아가신 형제들의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이곳으로 정하였다.

텡보체로 향하는 길에 우선 고소적응을 위해 우선 3200m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한다. 3시간 정도의 산행은 내리막길이라 신나는 기분을

날과 같이 5시 기상 오늘은 사원에서 한승권(62회), 장민(83회) 등 회원의 추모제를 지내기로 한 날이다. 일어나자마자 사원으로 향한다.

스님들의 인도로 30분간 고인이 된 형제들의 제를 지냈다.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이 너무나 많았던 형제들은 우리가 온 줄 알고 있는지 사진 속에서 너무 해맑게 웃고 있다. 보고싶다. 제를 지내고 밖에 나와 보니 이상하게 머리도 아프지 않고 컨디션도 괜찮았다. 상무형과 상

▶기 간 : 2006년 4월 1일 ~ 4월 9일

▶대상지 :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

▶참가자 : •원정단장 : 전상무(59회)

•원정자문 : 이재희(59회), 이상봉(59회)

•등반대장 : 박동규(64회) •부 대 장 : 홍종욱(65회)

•대 원 : 박기섭(74회), 김경윤(76회), 서승교(89회) 총 8명

▶기 록 : 박기섭(74회), 서승교(89회)



## 지 부소식

## ◆ 재경지부



모교 개교 100주년기념 행사 및 2006년 하반기 재경 지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논하고자 회장단 회의가 2006년 4월 19일(수) 털보네식당에서 열렸다. 당일 불순한 일기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100주년 기념 사업 준비에 많은 열의를 보였다.

조준제(47회) 회장의 인사 말과 작고한 전임 사무국장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시작으로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장학 사업으로 금년에 서울대에 입학한 4명의 졸업생에게 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그동안 6억4천만원을 모금했으며, 금번 지불한 장학금은 이자수익으로 지급하였으며, 차후에는 재학생을 주대상으로도 선정 지급될 것이다. 이외에 계성 100년사 발간 및 음악회 등 문화 행사와 각종 체육 행사 등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

체육대회 전야제 및 체육대회 참가 일정은 10월 13일의 전야제와 14일 계명대

학교 대운동장에서의 체육대회에 재경 동문이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기로 하였다. 10월 13일 오전 10시경에 잠실 운동장(예정 집결 장소)에서 버스(30대 예정, 각 기수 1대와 행사 추진 본부 및 임원버스)로 대구로 이동하며 전야제 참석 후 각 기별로 준비된 숙소로 이동하여 뒷풀이 후 익일 오전 집결지(장소 및 시간 추후통보)에서 계명대학교까지 카 퍼레이드로 가게 된다. 체육대회 이후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다.

## ◆ 재부지부



2006년도 재부계성학교 총동창회의 정기 체육행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춘계 이사회를 지난 4월 6일(목) 노블리아센터 10층 연회실에서 가졌다.

40회 이영목 고문, 45회 남태호 고문, 47회 홍기태 고문과 회장 이하 16명의 이사진이 모여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소개되지 않은 임원진의 인사, 계성100주년 행사 안내와 함께 5월 5일에 있을 재부 동창회의 체육행사로 금정산 산행 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등산로 및 저녁 연회에 대한 상세일정은 현장답사를 통해 구체화하여 추후 통보하기로 하였다.

특히 일선에서는 물러나 계시지만 계성 동창회의 모임에 힘을 실어주시는 고문님

들께 이사들이 정겹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 ◆ 재경주지부

1월 20일 서라벌웨딩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하여 회장에 백승인(59회), 총무 이종태(67회)를 선출 하였다. 3월 30일 애가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종현(39회) 선생님을 모시고 모임을 가졌다.

## ◆ 재울진지부



“계성학교 울진동문회” 4월 정기모임을 지난 4월 20일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 계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및 모교지원에 참여하는 방안과 모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정태훈(52회)-지방공사울진의료원 원장)회장은 울진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교 및 총동창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참여가 있어야 하며 많은 회원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주 만나야 함을 강조했다.

적은 회원이지만 성의껏 지원금을 모아 보내기로 결정되었으며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3월 18일 결혼을 한 김 진영(85회)회원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회원 앞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였다.

## ◆ 재성남 용인지부



2월에는 대모산(서울 강남구), 3월에는 부곡산(분당)에서 예정대로 정기산행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는 이상만(54회, 예도 조형연구소 대표) 동문의 조 각전이 성남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많은 지역동문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성남 용인지부 신임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영환(54회), 사무국장 송영일(66회), 총무 박준현(75회)

## ◆ 재포지부

3월 30일 꽃매지 보쌈식당에서 이성환(46회) 고문, 김상수(48회) 영덕동문회장, 송종영(52회) 회장의 62명이 참석하여 2006년 1/4분기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동문가족 체육대회 일정 및 2006년도 동문수첩(500부) 배포 하였다.

4월 12일 만월 일식당에서 이성환(46회) 고문, 송종영(52회) 회장의 18명이 참석하여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으로 부임한 오창관(58회) 동문이 인사차 참석하여 재포 동문회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기 별소식

## ◆ 제50회

△회장 : 윤종욱

△총무 : 이석순

지난 4월 24일 오후 7시 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20여명의 동기생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위와 같이 임원 개선을 하였다.

## ◆ 제54회

△회장 : 나정수

△총무 : 정태우, 최정태

2006년도 동기회 제2차 임원회의가 2006년 4월 14일(금) 오후 7시에 유경술 동문이 경영하는 복현오거리리에 있는 마페회 수산시장에서 개최 되었다. 당일 많은 임원들이 참석하여 동기회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울러 봄 야유회 개최에 관한 행사 세부계획을 집행부에 일임하였다. 당일 경비를 김신길 동문(대구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쾌척 하였다.

봄 야유회는 5월 5일(금) 대성고기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 제55회

△회장 : 이형우

△총무 : 박수황

2006년 3월 23일 목요일 19시에 에어포트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 제56회

△회장 : 강동규

△총무 : 최돈문

2월 27일 한우 반마리 식당에서 1차 회

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3월 30일 산촌한정식에서 18명 참석하여 전·현직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4월 9일 산동성 식당에서 30여명 참석하여 56회 동기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 ◆ 제59회



△회장 : 이택봉

△총무 : 김광재

2006년 2월 24일(금) 19시 신성가든에서 회장 이택봉 외 19명이 참석하여 1/4분기 임원회의를 개최 하였다.

4월 16일, 포항 운제산에서 2006년 춘계야유회 개최. 청운의 꿈과 희망을 품고 50계단을 오르내리며 10대 사춘기를 함께 보낸지 어언 35년! 계성59동기회 이름 아래, 知天命의 半白 初老의 신사로 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거금 55만원에 전세 버스 준비하고 전례로 봐서 45인승 버스에 쫘도 안차면 어떨하나? 노심조사 했지만 첨단과학의 힘을 빌어 욕이 나올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보낸 문자 메시지 덕분에 야유회 사상 처음으로 대구 동기 32명, 포항 19명 총 51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봄내음 들쭉 풍기고 봄꽃이 만발한 산행길을 한명도 낙오없이 포항 운제산(呑漁寺) 정상을 정복하고 저 멀리 영일만과 장기곶이 보이는 정상에서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정상주 한잔으로 피로를 말끔히

씻고, 산행 종료 후 포항 북부해수욕장 푸른 파도 넘실대는 바닷가 횃집에서 신선한 자연산 회와 물오른 영덕대게로 정겹게 주고 받는 소주 한잔은 자주 보지 못하는 포항 동기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회포를 풀기에 더없이 좋았으며 아름답던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게 했다.

공사다망 중에도 만사를 제치고 많이 참석한 59회 동기들! 특별히 대구 동기들을 위해 “알라 머리” 만한 영덕 대게를 준비한 천인수 포항 동기회장과 성배기 동기를 비록 아래도리 힘은 없지만 하늘같은 남편 모시고 동행해 주신 동기 부인들, 특별 찬조금으로 총무 근심(?)을 덜어 준 김실봉, 이동호, 이종복 전임회장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 제60회

△회장 : 손용식

△총무 : 성백관, 진동현

5월 14일 일요일 진밭골 입구 낙원산장 식당에서 야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제61회

△회장 : 예병국

△총무 : 배영호

2월 27일(월) 약전에서 동기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토의 내용은 100주년 행사에 61동기회 자체 프로그램을 갖기로 하였다. 구체적 일정은 총동창회의 일정이 확정되는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예비모임은 7월~8월 중에 각 지역 회장단과 대경지역 희망자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논의할 계획이다.

61동기회 취미 동아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여 총동창회 산악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61회 산악동아리가 적극 참여하고

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승엽 동기(현 61산악회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테니스대회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수 구성과 훈련을 최치식 동기가 맡아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바둑대회에도 참석하기로 하고 총무가 선수발굴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대구를 제외한 지역별 동창회 모임에 가능한 참석하기로 하고 특히 서울, 부산, 포항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대구 동기들을 많이 참여토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동기들의 경조사 시에 많은 동문이 참석하도록 연락을 강화하고, 임원진의 적극 참석으로 동기회에 대한 애정이 증폭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61회 기금 중 1,000만원을 총동창회에서 배분된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61회 동기회의 기금 중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조화 배송, 총동창회 분담금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민하기로 하다.(동기 여러분의 많은 고민과 참여를 부탁)7. 역대 회장단에 대한 예우 및 연락은 현회장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61동기회 주소록 재정비를 위해 5월 초까지 총무가 전담하기로 하였다.

## ◆ 제62회

△회장 : 김철봉

△총무 : 김홍대

2월26일 일요일 경북 후포 앞 바다에서 2006년 상반기 이사회를 개최 하였다.

## ◆ 제63회

△회장 : 이두복

△총무 : 김현철

2006년 3월 26일 일요일 영덕 일원에서 각지역 연합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 ◆ 제64회

△회장 : 조권섭

△총무 : 이경우

4월 30일 수성중학교에서 동기회 야유회를 가족동반으로 개최하였다.

## ◆ 제65회

△회장 : 정재원

△총무 : 서태교

3월 10일 서대구 주유소 서태교 수석총무 사무실에서 임원단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단 모임 및 집행부 재구성 모임을 가지고 총무단을 재구성하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존 총무단에

신임총무로 권택성, 이정욱, 김진걸, 서석태, 윤상일, 김기태 동기를 추가 했다. ▷주요안건 : 총무단 그룹 통화, 다음 메신저 설치 의무화, 동기 탐방 소모임 지원 및 활성화, 산우회 활성화, 워크샵 일정 등 임원진 개편 및 재구성안 회칙 일부 수정안.

4월 11일 서대구 주유소 서태교 수석총무 사무실에서 총무단 회의를 가졌다. ▷주요안건 : 부회장 교체 보완건, 총무 1인당 동기 할당 건, 100주년 총동창회 장학금 모금의 건, 워크샵 날짜 변경의 건, 4월 29일 기수 산행 건, 5월 14일 총동창회 기수별 등반대회 참가의 건, 연간 예산안 작성의 건, 동기 탐방의 건, 메신저 가입 유도 및 홈페이지 생활화 건, 워크샵 행사 방향 및 회비 등 준비사항.

## ◆ 제68회

△회장 : 신하용

△총무 : 최진태, 이종호, 정영표

3월 10일 신라 웨딩부에서 동문 50여명 참석하여 정기총회 및 홈커밍 발대식을 가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① 동기 동정 파악 ② 2006년 홈커밍데이 예산안 보고 및 통과 ③ 홈커밍데이 일자 확정 : 10

월 14일 오후 2시, 모교 강당 ④ 세부사항 : 회장단 일임 ⑤ 지역 및 반모임 추진 등에 관해 토의.

## ◆ 제69회

△회장 : 안재갑

△총무 : 신승철

3월 10일 19시에 두산동 창해물회에서 1차 정기모임을 개최 하였다. 3월 18일~19일 1박2일로 경주 하일락콘도에서 포항·경주 동기가족모임을 가졌다. 대구 본부 회장단도 참석하였으며 동기 12명 포함하여 가족 30여명이 참석 하였다.

## ◆ 제70회

△회장 : 김형곤

△총무 : 박준석, 최동훈

3월 25일~26일 충북 충주 수안보 사조콘도에서 70회 전체 워크샵을 가졌다. 대구, 서울, 충북, 울산, 경북 등에서 동기 대표 20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회의 내용으로는 100주년 장학기금 완료 및 납부, 100주년기념 가족 체육대회에 지부에서도 많은 동기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2008년 홈커밍대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

인지 목표를 정한 후 행사를 준비하자 등 1박 2일 동안 우의를 다지며 심도있는 많은 토의를 하였다. 4월 21 달서구에서 동기기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이날 특이한 것은 동기기회 한번도 안 나온 친구와 자주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주로 동기 친목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 ◆ 제71회

△회장 : 박범준

△총무 : 김창일

2006년 4월 9일 09:30~15:00에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회원 가족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체육대회를 개최 하였다.

## 모 쏘 식

## ■ KBS 도전 골든벨 출연

모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KBS 도전 골든벨」 녹화가 지난 3월 22일 영남이공대 강당에서 있었다. 당초 학교의 계획으로는 모교 대강당에서 녹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으나, 제작진에서는 관람하는 학생들이 필요하므로 스탠드가 있는 강당을 원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작년 교내 체육대회 때 운동장을 빌렸던 영남이공대를 찾았다.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이호성 교수(64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월에 KBS 제작진과 녹화가 협의된 후 3월에 접어들자 학교는 본격적으로 도전 골든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방송이기도 하거니와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수많은 졸업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작진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원자 중 100명의 출연진을 선발해야 했고 그중에는 학교의 참신한 이미지를 심어줄 학생, 남다른 개인기를 가진 학생,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학생들을 고르는 일은 물론, 각과별로 선생님들이 예상문제를 출제하는 일, 초반에 너무 많은 학생이 탈락할 경우 탈락한 학생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선생님들이 단체줄넘기를 하는 일, 100주년을 홍보하기 위한 유니폼 제작 그리고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100명의 댄싱 팀이 꼭 지점댄스를 추는 일,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할 선생님들의 특별공연, 모교를



▲ 도전 골든벨 녹화 장면

빛낸 선배를 섭외하는 일, 이 모든 일이 개학 후 20여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다.

정원각(63회, 음악) 선생을 중심으로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방면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단체줄넘기는 10여명의 교사가 점심시간이면 강당 앞에 모여 연습한 것이 일주일 을 넘겼다. 처음에는 10회를 넘기기도 힘들었으나 녹화 전 이미 50회를 달성할 수 있었다.

녹화당일 아침, 영남이공대 체육관에는 교직원과 학생들, 학부형, KBS 제작진 그리고 일부 영남이공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으며 강당 좌우측에 설치된 모교 100주년을 알리는 수많은 현수막들은 미동도하지 않은 채 기어이 골든벨을 울려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처럼 서 있었다.

드디어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녹화

가 시작되었다. 10여분에 걸친 연습 후 오픈닝 이벤트를 촬영했는데 단 한번의 시도도 멋지게 녹화를 끝냈다. 사회자도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렇게 녹화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자 학생들 중 탈락자가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24번 문제가 끝나자 7명의 학생만 남아 있었다.

드디어 단체줄넘기 시간이 되었다. 교사들이 줄넘기한 횟수만큼 학생들이 부활된다. 모두들 침을 삼키며 보고 있는 동안 줄넘기가 진행되고 마침내 61번에서 줄넘기가 멈췄다. 역대 최고기록에 근접할 대단한 기록이었다. 67명의 학생으로 다시 녹화가 시작되었고 40번 문제를 넘긴 학생수는 무려 20명을 넘어 모두들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학생수는 급격히 줄어 48번 문제에서 1명의 여학생이 남았다.

48번 문제를 다 듣기도 전 남은 1명의 여학생(3학년 장수린)은 손쉽게 정답을 적었고 48번 문제를 통과한 최후의 1인은 49번 문제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그만 답을 적지 못하고 말았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작진도 아쉬워했다. 학생들이 접어 날린 종이 비행기가 강당 안을 가득 메우며 날아다니는 가운데 그렇게 100주년 기념 골든벨은 녹화를 마쳤다.

녹화내용은 4월 9일 오후 7시에 KBS 제1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 ■ 운동부 소식

모교 유도부는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안동시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제77회 YMCA 전국 유도대회 - 2006 세계 및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선발전 겸」에서 단체전 3위, 개인전 3위(-81kg, 2학년 김보림)를 거두었다.

한편, 농구부는 2006년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연맹전」에서 3위에 입상했으며 볼링부는 2006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학 볼링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2학년, 윤대인), 5인조 금메달(3학년 안성현, 2학년 윤대인, 1학년 김한국)을 획득했다.





## 인물정



▷**신용수**(35회) 고려대가야 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 되었다.

▷**정창근**(40회)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 대표이사는 안동재활원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안동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안동단비원으로 생활시설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서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인교보호작업장과 예인근로작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천시 받고 멸시 받아온 한센인들의 무료봉사를 시작으로 한센인들과 인연을 맺어 1984년 1월 1일 안동성좌원 입소생들의 성원으로 안동성좌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한센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

2001년 1월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무난히 수행하여 2006년 2월 현대화 사업을 완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과 한센인의 안락한 보금자리제공에 일조했다.



▷**박용규**(44회) 전 영남일보 논설고문은 최근 대구시에서 열린 국제보상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 되었다.



▷**정충영**(45회) 대구도시가스 대표이사는 대구상공회의소 상임위원으로 선임 되었다.



▷**백경진**(53회) (주)대동산업 대표이사는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위원으로 선임 되었다.



▷**김신길**(54회) 아세아종합기계(주) 대표이사는 3월 14일자로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에 선임 되었다.

▷**김주옥**(54회) 3월 1일자로 강구초등학교 교장으로 영전 되었다.

▷**박광길**(55회) 서울소방 방재청 혁신관리관에서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실장으로 영전 되었다.



▷**손영대**(55회) 삼양주유소 대표이사는 대구상공회의소 상임위원으로 선임 되었다.



▷**이동욱**(56회) 동방공업 대표이사는 대구상공회의소 상임위원으로 선임 되었다.



▷**김상태**(58회) 평화발레오 대표이사는 3월 14일자로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에 선임 되었다.

▷**엄재길**(58회) 대구 서부교육청 중등과장에서 와룡고등학교 교장으로 영전 되었다.



▷**김종원**(58회) 중앙경찰서장에서 김포경찰서장으로 취임 하였다.

▷**오창관**(58회) 3월 포스코 주총 후 임원인사에서 포항제철소장(전무)으로 부임 하였다.

▷**임주재**(59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승진 되었다.



▷**한재권**(60회) 서도산업 대표이사는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에 선임 되었다.

▷**박상원**(62회) 계명대학교에 재직중인 박상원 동기가 3월 2일자로 환경대학장에 취임 하였다.



▷**이현희**(62회) 경북철곡경찰서장에서 3월 7일자로 대구 서부경찰서장으로 영전 되었다.



▷**나주영**(62회) (주)제일테크노스 대표는 포항상공회의소 제19대 부회장에 선임 되었다.

▷**박재환**(62회) 한국투자신탁 증권 목동지점 이사에서 일산지점 상무보로 승진 발령 받았다.

▷**안승철**(63회)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원장에서 교양학부 학장으로 취임 하였다. (3/1)

▷**정명섭**(63회)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에서 대구시청 건축주택국장으로 승진 하였다.

▷**박정화**(63회) 대구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직중인 박정화 교수가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선임 되었다.



▷**손중배**(64회) 유레카 대표이사는 대구상공회의소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다.

▷**김성근**(65회)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령 받았다. (2/20)

▷**정재관**(65회) 지난 3월 76사단 116 연대장으로 취임 하였다.

▷**변대근**(65회) 4월 24일부터 진실과 화해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인권침해조사국 9팀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김채해**(67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지원장으로 부임하였다.



▷**박병화**(68회) 3월 12일 2006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제77회 동아마라톤 대회)에 박병화(68회)동문이 영예의 명인(sub3)으로 탄생 되었다.



▷**양승재**(71회) 삼화식품 대표이사는 대구상공회의소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다.

### ◆ 축하드립니다.

▷**박운서**(45회) 아들 결혼식 (3/17)

▷**유윤철**(52회) 장남 결혼 (4/18)

▷**이병구**(53회) 자녀결혼 (3/25)

▷**배주석**(53회) 장남 결혼 (4/23)

▷**김영호**(53회) 장남 결혼 (4/9)

## 신임 재경지부 사무국장 이응재(64회)동문



김승술(57회) 재경지부 사무국장이 사고로 별세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이응재(64회) 동문이 수고하게 되었다.

아직 경력으로 보나 여러가지 면으로 볼때 사무국장 자리가 무거울 수 밖에 없으나 지난 날 조준제(47회) 현 회장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옆

에서 거들고 한 인연이 있어서 조준제 회장의 강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응재 사무국장은 현재 골프장 벙커용 수입 모래를 판매하는 국제 운송 및 무역업인 (주)유니콘 트랜스에 1994년도 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유니콘 트랜스사는 골프장 수입 모래 외에 골프장 잔디 식재시 사용하는 비료 일종인 이끼인 Peatmoss도 아울러 취급하고 있는데 필요한 동문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봉사할 계획이라고.

▷**이병구**(53회) 장녀 혼인 (3/25)  
▷**이재윤**(53회) 장남 결혼 (3/12)  
▷**변천환**(53회) 차남 결혼 (2/5)  
▷**조광제**(53회) 장남 결혼 (1/14)  
▷**임은식**(54회)고인 자녀결혼 (4/8)  
▷**조현발**(55회) 장남 결혼 (4/2)  
▷**전태호**(56회) 차녀 결혼 (2/18)  
▷**김호식**(56회) 장녀 결혼 (2/26)  
▷**박영식**(56회) 왜관 파밀스 골프장 대표로 취임 하였다.

▷**김익환**(56회)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수성구 범어동 177-10 대구일보사옥)  
▷**김교욱**(56회) 장녀 결혼 (3/18)  
▷**배창식**(56회) 장남 결혼 (5/12)  
▷**박현철**(57회) 아시아철강대표는 중국 광주에 현철 철강 유한공사 공장을 준공하였다.

▷**고동현**(57회) 계성마라톤회 수석부회장으로 3월 2일 열린 달성초등학교 총동창회 13차 정기총회에서 제 8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임 되었다.

▷**정면득**(58회) 한국의 명물 스카이72 CC의 상임감사에 취임 되었다. (3/28)

▷**안윤욱**(58회) 반월당 지하상가에 또 하나의 프로스펙스점을 개업 하였다.(반월당 지하상가 E410호 상호 "프로스펙스")

▷**이승재**(59회) 자녀 결혼 (4/23)

▷**김실봉**(59회) 자녀 결혼 (4/9)

▷**추연정**(61회) 기아자동차 해외영업본부 법인관리팀장(이사)에서 KEFICO(주) 경영관리실장(이사)으로 영전 되었다.

▷**박종하**(62회) 빅스 (Next Sunday) Cafe개업 하였다.(중앙시네마 건너편 길(대백쪽) 10m정도 우측편 2~3층)

▷**변창대**(62회) 포스코의 에너지 사업 추진반의 사업기획 팀리더(차장)에서 4월 1일자로 부장인 관리직으로 승진 하였다.

▷**서상철**(62회) 미래연합의원을 이전 개원 하였다.

▷**구중모**(63회) 경북체고 교감으로 부임 하였다.

▷**주재호**(64회) 농협중앙회 경산지부로 부임 하였다.

▷**현영호**(65회) 계룡산 동학사 입구에 레스토랑을 개업 하였다. (3/1)

▷**박노화**(65회)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동 아태지역 생산공장 재무담당으로 발령 받았다. (4/3)

▷**이영민**(66회) ㈜두영 대표이사는 6월 경상북도로 부터 '2월 우수기업'으로 표창장을 수상 하였다.

▷**이호룡**(66회) 도토리수제비와 박포생갈비(박씨가 포뎃다고 박포란다)를 주메뉴로한 '풍경' 식당을 개업 하였다.(장기동 영남 네오빌비스타 APT 앞)

▷**김원중**(68회) 의정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하였다.

▷**이창환**(69회) 한화증권 영천지점장에서 울산지점 지점장으로 영전 되었다.

▷**이강호**(69회) 대원당 인쇄소 공장을 신축 및 이전 개업 하였다.

▷**성기선**(69회) 카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4월 3일 KBS1 라디오 열린 토론 방송에 약 2시간정도 출연하여 학군광역화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재용**(69회) 3월 1일 부로 화원고등학교로 전보 발령 받았다.

▷**구해서**(70회) 정평정형외과를 개업 하였다.

▷**정유진**(71회) (주)화신테크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다.

▷**조영주**(72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하였다.(서울 서초동 법원 앞) (4/29)

▷**정혜윤**(86회) 경산경찰서 입석지구대로 전임 하였다.

### ◆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만복**(31회) 별세 (3/12) 전 KBS악단 지휘자

▷**김상열**(33회) 별세 (2/27) 전 계명대학교 이사장, 전 효성카톨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김상열(31회)동문의 동생이며, 김덕양(60회)동문의 부친.

▷**민병동**(39회) 별세 (3/8)

▷**곽병삼**(44회) 별세 (4/18)

▷**김상호**(50회) 모친상 (3/13)

▷**이강철**(53회) 장모상 (3/8)

▷**최인상**(53회) 모친상(3/3)

▷**주병식**(53회) 모친상(2/23)

▷**이호선**(53회) 모친상(2/16)

▷**김동철**(54회) 모친상 (2/28)

▷**구입본**(56회) 모친상

▷**이상길**(56회) 부친상

▷**김승술**(57회) 재경계성동창회 사무국장 별세 (2/26)

▷**김대규**(58회) 별세 (3/12)

▷**정원준**(58회) 부친상 (3/7)

▷**제갈걸**(58회) 장인상 (3/6)

▷**한병희**(58회) 장인상 (2/27)

▷**김중진**(59회) 모친 별세 (2/26)

▷**정규태**(59회) 모친상 (4/19)

▷**유명재**(59회) 부친상 (3/12)

▷**이승규**(60회) 부친상

▷**김명계**(61회) 모친상

▷**석재호**(61회) 부친상

▷**한기영**(61회) 장모상

▷**임정규**(61회) 빙부상

▷**장철현**(62회) 모친상(2/22)

▷**신동익**(62회) 부친상

▷**서해수**(62회) 부친상 (4/17)

▷**김선택**(63회) 숙환으로 별세 (3/24)

▷**권종림**(65회) 빙모상 (3/4)

▷**서기한**(65회) 부친상 (3/8)

▷**김진영**(66회) 모친상

▷**정광훈**(66회) 부친상

▷**김종식**(66회) 모친상

▷**이용호**(66회) 장인상

▷**김홍섭**(67회) 부친상

▷**백낙진**(67회) 부친상

▷**문동은**(67회) 부친상

▷**박재만**(68회) 부친상

▷**이명석**(71회) 별세 (4/27)

▷**김진태**(중 국어과,1983.2 정년 퇴임) 선생 별세(4/23)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골목에서 이렇게 꼬부라져 왼쪽으로 돌았지. 옳지. 그러면 이 길이 뒷골목에 연결되어 있었으니 아마 이 집이 맞을 거야. 아냐. 난 자신이 없어. 집 구조를 보라구. 그때보다야 변화긴 많이 변했지만 저 아래채에 그 여학생이 살았고 난 이 윗채 큰방에서 살았잖아. 이 집이 틀림없을 거야. 글쎄. 그래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

삼십 년 만에 서울에서 친구가 와 옛날에 살던 동리의 골목길을 더듬어 우리가 살았던 집을 찾아 나섰다. 그와는 계성고 동창으로 교회에도 함께 다녔을 뿐 아니라 밤낮으로 좁은 골목을 더욱 비좁게 푸닥거리던 어릴 적 친구였다. 그러니까 열대여섯 살의 소년기적 몇 년 동안은 함께 생활하다시피 한 내 생애 중에 사귀지 못할 친구 중의 하나이다.

당시 어머니는 나와 남동생의 교육을 위해 시골의 논 서마지기를 팔아 학교와 가까운 대구 남산동, 그것도 수돗물이 귀해 '때때 말랭이'라 불렀던 이곳에 사글세 방 하나를 얻어 힘겨운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친구는 바람난 아버지의 얼굴을 일년에 한 두 번 볼까 말까 하였고 보따리장사로 떠도는 어머니 밑에서 두 동생과 함께 절(寺刹)집 아랫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던 터였다. 둘 다 가난한 부모의 맘으로 도시의 단칸 셋방에서 동병상련중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학하기가 바쁘게 원발오른발이 되어 쫓쫓거리며 돌아다녔었다.

우리 집은 이 동리에서만 다섯 번이나 이사를 하여 어느 집을 우리 집이라고 딱히 단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친구는 고등학교 일학년 때 살았던 나지막한 흙담 위에 초가지붕을 덮은 골목 안집을 우리 집이라고 일컫는 것 같았다. 그 집에는 다섯 가구가 모두 일곱 개의 방을 사글세로 살고 있었으니, 두 가구만이 두 개의 방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단칸이었다.

두 개의 방을 쓰고 있는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우리가 다니던 교회의 고등부 부회장인 같은 또래의 예쁘장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때문에 친구의 의식 속엔 우리 집이 바로 그 소녀의 집이었고 그 소녀의 집이 우리 집이어서, 삼십년이 지난 오늘 까지도 강렬한 인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실로 삼십년 만에 옛 살던 나의 집을 찾아가는 감회는 작은 환희로 바뀌어 발걸음 또한 가벼웠지만 "이 집이 나의 옛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엔 우리 너무 늙어 있었다. 이렇게 세월은 아득함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까지 덩어

여어 주니 지나온 옛날을 결코 인정 하나만으론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산 능선의 윤곽만은 항상 회상의 끝에서 아물거리지만 막상 찾아가 보는 고향의 하늘은 색깔과 햇볕까지도 달라져 버린 것을. 더욱이 아는 이의 얼굴 하나 없는 고향 마을의 텅 빈 골목길은 이미 정 두고 떠난 고향이 아니란 것을. 그래서 한번 떠난 고향은 찾아갈 수 있는 땅 위에 없고 다만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다고 하지 않는가.

큰길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동리 입구의 그 때 팔뚝 굵기의 수양버들은 벌써 가슴 넓어진 장년으로 약간은 늙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목 좋은 가게 터는 여전히 유리상자 속의 눈썹사탕은 간 곳 없고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아이스크림과 고급과자들만 쌓인 채 우리들의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

우리들의 위안을 위하여, 추억을 위하여 가내공업공장으로 변해 버린 남의 집을 막연함 속에서도 삼십년 전의 내 집이라 결정하고 뒷골목으로 돌아 나왔다. 선달의 매운바람이 얼굴을 핏키고 지나가자 찬바람에 유독 약한 두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때 뒷골목의 전주마다엔 '귓병 전문'이란 쪽지가 붙어 있었고 귓병 전문 강영감의 딸을

'귓병집 딸'이라고 놀려대곤 했었지. 지나온 과거가 모두 옛날은 아니다. 가난했을망정 행복했던, 그것이 오롯이 기억으로 남아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나서듯 그리움이 얼음 위의 너털처럼 덕지덕지 쌓인 추억일 때 비로소 옛날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살지 않고 추억 속에 산다. 과거가 있는 여자는 추하게 느껴지고 과거를 추억으로 받아들이는 여자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양 다니던 골목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삼백 미터 떨어진 친구의 옛 집을 찾아 나섰다. 좁은 골목은 조금도 넓어지지 않고 다만 인도 블록이 깔렸을 뿐 옛 그대로이다. 그러나 너비 오십 미터의 대로가 마음속에 항상 '우리의 골목'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추억의 소로를 절단시켜 놓고 있었다.

시간의 단절일까. 산천도 골목도 심지어 하늘까지도 시속에 따라 변할 뿐 떠난 이의 마음속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는 오늘에 순종하지 않고 간절한 그리움은 그리움 자체까지도 배반당할 때가 있

다.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휴지 한 장을 날리며 우리 앞을 지나간다. 친구와 나는 세월을 끌어 놓은 대로를 횡단보도란 교량으로 건너 삼십년 전으로 걸어간다.

하이드 앤 시크(Hide and Seek). 옛날은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듯 좀처럼 술래는 잡히지 않는다. 친구가 살던 옛 절집은 아마산 열불암 이란 현판을 달고 중늙은이인 대처승이 하루에 반 이상을 술에 취해 살고 있었는데... 요사채로 지었던 부속 건물의 많은 방들은 하나같이 사글세방으로 내주어 월세가 밀리지 않도록 방세 독촉을 열불처럼 외고 다녔었지.

요사채 자리의 낡은 방들은 헐린 후 신식 건물이 들어서 열불당이란 당호를 이마에 붙이고 있었다. 또 몇 개의 계단을 올라 두 그루의 파초를 행사 때 기수를 세운 듯한 낡은 대웅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시멘트 구조물이 목조건물의 멋을 낸 대규모 현대식 사찰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대한 불교 조계종 제9교구 대구 포교당 아마산 원각사>

비로소 우리는 다리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왜 옛이 옛 그대로 머물러 주지 않는다는데 대한 회한만은 아니었다. 변해버린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그 그리움 때문에 다시 찾아온 미련에 대한 증오였다 고나 할까.

이날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 찾기 놀이는 시간의 실체를 찾지 못해 약간은 허망했지만 절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골목에서도, 초가가 슬레이트로 변한 지붕의 처마에서도, 일방통행로로 변한 큰길에서도, 사람은 바뀌었지만 옛 그대로인 가갯집 아줌마의 얼굴에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의 일부는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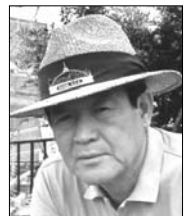
늦은 밤 교회에서 성가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달리는 지프 뒷꽂무니에 매달렸다가 넘어졌던 기억. 수돗물이 현금인 시절이라 하학 후엔 물지개를 짚어지고 다리목 공동 수도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우리들의 실루엣. 땀감으로 톱밥과 피죽을 사기 위해 제재소로 드나들며 머리칼이 뽀얗게 톱밥가루를 덮어쓴 일들. 무엇이 그렇게 그리웠던지 항상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사춘기. 그리고 크리스



마스이브와 새벽송 돌던 새벽길. 우린 골목에서 골목으로 어린 시절을 쫓느라 이 마음이 되어 있었다.

기름이 떨어져 가는 램프에 한 방울의 기름을 아껴본 사람이라면 심지를 올리는 대신 등피인 유리를 닦는다고 했다. 심지를 활짝 올려 질기도록 매달려 있는 그리움을 활활 태우기보다는 정성스레 유리를 닦는 것이 우리가 오늘 행한 이 같은 작업이 아닐까.

친구는 밤 열차 편으로 서울로 떠났다. 떠나면서 그는 4년째 간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삶도 죽음도 하늘에 달려 있다고 했다. 부디 그와의 잃어버린 시간 찾기 놀이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를. 잃어버린 시간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날엔 종종 이렇게 '동화 속의 소년'이 되어 우리들의 젊은 날과 그날의 꿈이 걸려 있는 골목길을 함박 웃음 앞세우고 배회할 수 있도록.



구 활  
(47회 • 수필가)



## 株式會社 和信테크

<http://www.hstech.co.kr>

代表理事 / 社長

鄭 由 鎮 (71회)

大邱廣域市 達西區 葛山洞 城西工團 44B2L

TEL : (053)583-1171 FAX : (053)583-0262

H·P : 011-9363-0806

E-mail : jjj1023@dreamwiz.com



## 동문시선

## 花王이 내게 일러

박 은 (49회)

서럽도록 청명한 날은  
우리러 하늘을 보라신다.  
화왕은 나를 불러  
언덕에 오르라신다.

꽃들은 이리저리로 피어  
웃음으로 흔들리는데  
화왕은 내게 일러  
이름을 지으라신다.

내게는 재주가 없어  
민망히 서 있을 뿐  
어찌 저 꽃들에 이름을 지으랴.

희고도 붉은 님의 얼굴  
눈부시어 눈부시어  
차라리 한 백년  
별이라도 서리라.

그때 화왕은 내게 일러  
이제는 가라, 저 들판으로 가라신다.  
거기서 다시 한 백년을  
꽃으로 살라신다.  
꽃들의 이름을 부르라신다.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1968년)  
도서출판 지평서원 창업, 대표로 현재에 이름  
한국 기독교 출판문화대상 수상

## 〈바로 잡습니다〉

지난 40호 「축하합니다」란에 기재된 45회 박병무를 전재수로, 「기별소식」란에 기재된 46회 회장 이해은을 이해언으로, 「인물」란에 기재된 홍철근 기수 59회를 57회로 정정합니다.

## 「동리·목월 문학관」 개관 전 국민의 문학적 공지이자 계성의 자부심

2006년 3월 24일 오후 2시 10분.

경주시 진현동 550-1번지 불국사 맞은편 언덕에 세워진 「동리·목월 문학관」 개관식이 김평우(김동리(21회) 장남), 박동규(박목월(23회) 장남), 등 유족대표와 신세훈 한국 문협 이사장, 문호치 국제펜 클럽 한국본부 이사장을 비롯 전국의 문인,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우 경주시 문화관광 과장의 사회로 열렸다.

국민의례에 이어 손효의 문화국장 의 경과보고에 이어 장운의 기념사업 회장(평론가)은 한국문학의 거봉이며 소설과 시의 양봉을 이룬 두 분은 전 국민의 문학적 공지가 되는 위대한 자산으로 이 분의 문학관이 이 곳 고향에 건립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축제가 국민적 사업으로 이룩된 문학관은 앞으로 전 국민의 교양의 자리이자 세계적 문화 관광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승 경주시장의 개관 인사, 김용대 행정부시장의 축사와 신세훈, 문호치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김평우 유족대표는 작고한지 11년 만에 아버님이

총애한 집을 좋은 자리에 세워 기쁘다. 방향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의 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는 큰 절을 하였다.

서영수 시인의 축사와 이정아씨의 축하에 이어 현판 제막식이 있었는데 김태동 이사장도 제막식에 참가 했다.

국비 12억, 도비 12억, 시비 22억과 전국 문인의 찬조 등 42억을 들인 기념관은 'ㄷ'자 한옥형식인데, 왼쪽이 동리, 오른쪽이 목월관이며 지하에 회의실 겸 영상실이 있다. 유족으로부터 유품 5000여점을 기증 받았으나 1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문학관 개관은 경주와 한국이 낳은 두 거인이 바로 계성이 낳은 동문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문학관 개관으로 한국문학발전의 기폭제가 되며, 여타 문학관의 모범이 될 수 있겠다는 평을 듣기로 했다.

이날 개관식에 김태동(재단이사장), 정인표(고등학교장), 이수남(계성 100년사 집필위원), 김정길(동창회 사무국장), 김원일(재단 사무과장), 김완식(고 행정실장) 등이 참석 했다.



▲ 문학관 앞에서. 좌로부터 김정길, 이수남, 김태동, 정인표, 김완식 선생

## 〈알림〉

계성학교 총동창회 신입부회장으로 서영수(48회), 장영진(57회) 동문이 선임 되었습니다.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동성로지점 / 지점장

이 언 철 (72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40 메리츠화재 B/D 9층  
TEL : (053)256-1506 FAX: (053)257-6293  
H·P : 011-510-1778  
E-mail : leeuc1020@miraeasset.com  
www.miraeassetlife.com



# 원자력 의학원에서 발명한 세계적 특허물질 인삼속 진주 “진산” ‘진산’ 최고 18배의 항암면역증강 효과

## 인삼속 진주 ‘진산’의 발명 배경

한국원자력의학원은 1990년부터 인삼, 홍삼, 버섯, 쑥 등 70여종의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인삼 속에 기존에 알려진 사포닌이 아닌 다당체물질이 면역세포 활성화와 더불어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주는 뛰어난 효능을 보였으며 이 물질의 이름을 진산(Ginsan)이라 명명하였다.

13년간의 연구와 수십억 원의 자금을 들인 국책사업. 인삼 1,000Kg에서 30Kg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진산’은 97%의 인삼을 버리면서도 추출할 정도로 그 가치가 대단해 가히 인삼속 진주라 할 수 있다.

## 인삼속 진주 ‘진산’의 동물실험

고려인삼학회에 발표된 ‘진산’의 논문과 특허등록공보에 따르면 각종실험결과 암에 걸린 쥐에 진산을 주입시킨 결과 종양세포의 성장을 60%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NK세포의 활성화는 2.4배, T세포의 증식은 2.1배, Cytokine(항체의 생성을 유도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싸우는 분자)산생능은 진산을 주입하지 않은 쥐에 비해 300배로 현저히 증가되었다.

또한 암세포의 전이를 44% 억제함과 골수모세포의 경우 4.7배 백혈구 수치는 2배 증가하는 등의 효능을 보였으며 암세포살해면역세포 생성작용 3.5배 방사선민감작용에서 일반대조군에 비해 45%의 방사선감소 수치를 나타냈다.

## 진산의 특허

이 물질은 지속적인 암환자의 증가와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13년간의 연구끝에 국내최고의 암의료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구 원자력병원) 면역학 연구실에서 발명된 최고의 면역증강물질이다. ‘진산’의 효능 특허는 면역력강화효과가 있음을 밝혀낸 원자력의학원 윤연숙 박사는 1993년 12월 특허를 출원, 5년만인 1998년 4월 면역증강효과를 나타내는 인삼단백다당체(“진산”)이라는 명칭으로 국내 특허(특허 제144130호)를 획득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결과 2000년 8월 효능특허를 출원하여 2002년 11월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생성작용 및 방사선 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로 국내 특허(제 0361187호) 및 미국특허(제6555527호)를 받음으로서 효능에 대한 국내외

진산의 국내 외 특허 현황(일본, 영국, 이탈리아 특허출원)

제 목	등록일	등록번호	국명
면역증강효과를 나타내는 인삼단백다당체(“진산”)	1998.4	제144130호	한국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암세포살해면역 세포생성작용 및 방사선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	2000.8	0361187	한국
The hematopoietic myeloreleaching, antitumor immune cells generating and radiosensitive polysaccharide isolated from panax ginseng	2003.4	6555527	미국

적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에도 출원중이며 지속적인 임상실험 중이다.

## 수입 암치료 보조제 대체 품목으로 평가

현재 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50% 환자밖에 치료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약용식물, 침, 뜸 등의 대체의학으로 암치료를 높이려고 노력중이다. 특히 암치료 보조제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독일의 헬리크, 일본의 피시바닐, 레티난 등은 고가의 제품으로 ‘진산’은 이를 대체할 물질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기존 항암보조제와는 달리 암세포를 없애는 T세포와 대식세포, NK세포, LAK세포 등의 활동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부작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산 양산화

원자력의학원은 인삼속 진주인 ‘진산’ 추출기술을 벤처기업인 코인텍(www.kointec.org)에 이전시키고 양산화에 성공했다.

코인텍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암환자 또는 암 예방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진산원액인 진산고,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진산젤, 수험생이나 자녀를 위한 진산액, 음주전후 또는 운동 후 마시는 진산-D 등이 있다. 특히 진산의 효능이 입에서 입으로 끊이지 않고 전파되면서 암환자 및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이 생명인 대전시티즌 축구선수단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 의료계 등 많은 사람들이 섭취복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공식상품화권자에 선정됨으로써 세계화 전략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코인텍의 이승근 대표는 ‘국책사업의 결과물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97%를 버려야만 태어나는 ‘진산’이 국내를 대표하는 건강식품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물질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연구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동주(의학전문 프리랜서) 문의 : 080-482-2332 / www.kointec.org

## 진산고 출시주년기념 진산구원(9+1) 페스티벌

국책사업의 결과물인 ‘진산’을 판매해온 코인텍은 각종 사회단체에 ‘진산’ 제품을 기증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이 어려운 150여명의 암환자 및 당뇨환자에 ‘진산’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진산고 출시 1주년 및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고객감사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기간에 진산고를 구입하는 암환자 및 가족에게는 9%의 할인권을 적용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진산고, 진산젤을 구매하는 고객에 신제품인 진산-D(20만원상당)를 무료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구매시 사용가능한 10%할인 쿠폰을 진산제품을 구매한 전 고객에게 증정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기획팀의 관계자는 ‘그동안 진산제품과 회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암환자 및 가족분들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